

vol.5

9.11 20주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배울 것인가? 포스트 9.11, 낯설게 보기

플랜P



ISSN 2733-9254

평화저널

계간 평화저널

플랜P

2021년 가을 제5호

2020년 5월 15일 등록 종로, 바00221

2021년 9월 15일 발행 통권 제5호 [Post 9.11]

발행인 김복기
편집장 김가연
편집위원 김상덕 김성한 김수연 김유승 박숙영 이은주 장인희
디자인 더디앤씨 | www.thednc.co.kr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발행처 평화저널
출판등록 2020. 5. 12. 제2020-000052호
주소 (0314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28 낙원상가 5층 500-14호
이메일 pjplanp@gmail.com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
페이스북 facebook.com/PJPlanP
전화번호 02-6339-2272

ISSN 2733-9254
ISBN 979-11-971531-4-3
값 12,000원

목차

004

Overview 들어가며

플랜P의 다섯 번째 키워드,
Post 9.11

006

P-word 특집

9.11 20주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배울 것인가?
_이인엽

포스트 9.11, 낮설게 보기
_정주진, 정육식, 텃야평

034

비주얼라이징 피스

전쟁의 대가
_김성한, 김가연

040

Interview 만남

경험부자 카야의 춤추는 평화

함께 꾸는 평화의 꿈,
헬프시리아 이야기

066

Voice 기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단초
_류복희

070

Issue 이슈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문제였다
_최재훈

076

Voice 기고

바람만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몸에 깊이 새겨있을까?
_캐서린 멘스필드

082

Learning 배움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치유로 향하는 여정, STAR
_안은경

086

Culture 문화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가
매 순간 공존하는
_장인희

091

Stories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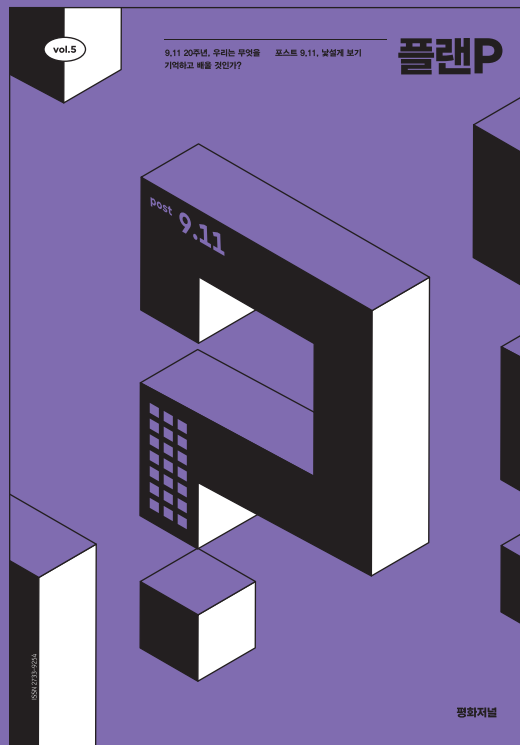
플랜P 이야기
독자 이야기

093

Notice 공지

플랜P에서 알립니다

제5호 POST 9.11



《플랜P》는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용한 '테러'에 담긴 국제정치적 권력 관계를 낯설게 보고,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고자, '9.11'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김가연 <평화저널 플랜P> 편집장

POST 9.11

안녕하세요. 새롭게 편집장을 맡게 된 김가연입니다. 2020년 6월에 창간호를 낸 《플랜P》가 딱 한 바퀴를 돌고, 한 걸음 더 내딛는 9월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플랜P》의 다섯 번째 이야기를 기획했습니다. 9월호에 담을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라는 선택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번 호의 키워드는 'Post 9.11'입니다. 20년 전 어느 날, 뉴욕의 높은 빌딩에 여객기가 돌진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송출되었습니다. 질은 먼지더미가 내려앉는 뉴욕의 한 거리는 그날 이후 역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날 이후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던 자리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뉴욕의 그 자리와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한 편에서 작지 않은 시공간을 넘어 9.11을 반드시 기억하고 되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9.11 이후의 시공간이 익숙해져버린 세대에게 '낯설'의 눈을 제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특집 포럼에서 패널로 참여한 정주진 박사님은 '한번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의 아프간 침공 당시 한국은 국군 파병으로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미군이 철수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때 격렬히 반대하지 못한 채, 포스트 9.11 체제의 부당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 그 책임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계 공동체라는 모호한 상호 연결성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였던 전쟁의 씨앗을 책임지고 거두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구인의 책무로, 다음 200년을 살아갈 우리의 선택이 평화를 향하길 바랍니다. 포스트 9.11이 평화가 되길 바라며.

9.11 20주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배울 것인가?

이인엽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 리 대학교(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

9.11 20주년이 되었다. 충격적인 그날의 사건은,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왔는가?

9.11로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중동 군사개입은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이슬람국가IS의 발흥과 몰락, 중동 난민 사태, 그리고 최근의 미군 아프간 철군과 탈레반의 재집권까지 연쇄 작용을 하며 이어져 왔다. 지난 20년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고, 9.11과 이후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P

피워드



WORD



1. 알 카에다와 빈 라덴

9.11을 이해하려면 그 기원이 되는 1980년대 미국의 아프간 비밀 작전을 알아야 한다. 1919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아프간은 온건 이슬람 국가로 서구화를 진행하며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으나, 1970년대 들어와서 공화주의, 공산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등 복잡한 정치 세력들이 각축을 벌였다, 결국 급진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이들은 다시 근본주의 이슬람과 대립한다. 그러자 1979년 12월에 소련은 국경을 접한 아프간을 통제하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한다. 이후 소련은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10년의 악몽을 경험하고서야 1989년에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하는데, 이는 1991년 소련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소련이 고전한 이유는, 아프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무자헤딘 게릴라들을 미국이 비밀리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카터 정부는 소련의 아프간 개입이 미국의 중동 석유 패권을 위협하려는 첫걸음으로 이해하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카터 독트린(1980)'을 발표한다. 동시에 미국은 강대국 소련이 약소국 아프간을 침공했다고 격렬히 비난하며, 아프간에 대하여 '사이클론 작전'이라는 비밀 군사개입을 시작한다. 그런데 카터 정부의 핵심이었던 국가안보 보좌관 브레진스키는 199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자헤딘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밀 작전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소련의 침공 직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것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유도해 과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수렁을 소련에게도

안겨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결국 미국의 모든 관심은 냉전 승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80년 말, 미국 대선에서 '냉전의 전사' 레이건이 당선됨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개입은 더욱 심화된다. 미국은 인접한 파키스탄의 정보국 ISI와 협력하여 아프간의 무자헤딘 게릴라들에게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무신론의 공산주의 소련과 싸우는 이슬람 형제들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을 연결해 막대한 돈과 인력을 아프간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놀랍게도 근대 역사 최초의 '글로벌 이슬람 지하드 운동'은 바로 '미국'의 후원으로 조직된 것이다.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무기와 군사 훈련을 제공해서 나중에는 자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9.11 이후 부상한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이슬람의 종교와 문화를 세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그 논리가 얼마나 단순하며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국제 갈등을 문명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 이론은, 과거 미국의 군사개입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지에 따른 팔레스타인 문제, 중동의 석유와 관련된 미국의 패권, 독재 정부와 미국의 유착 관계 등을 모두 간과하게 만든다. 파키스탄의 여성 총리였던 부토는 미국의 후원하에 파키스탄 정보국이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되어가는 것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198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에게 "당신들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9.11 이후 조지 부시나 새뮤얼 헌팅턴 등은 문명충돌론을 토대로 9.11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문화와 체제를 증오해서 벌인 사건으로 정의했으나, 《블로우백》을 쓴 찰머스 존슨은 9.11은 미국이 과거에 벌인 비밀 군사개입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빈 라덴은 파나마의 노리에게나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한때 미국의 가까운 협조자로 있다가 적이 된 인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한 길항 관계의 희생양이 되어 2007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사망했다.

여하간 미국의 사이클론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미국이 무자헤딘에 제공한 대공 화기인 스텔어 미사일 등이 소련 헬기와 전투기들을 무수히 격추했고, 이들의 게릴라 전술에 소련은 막대한 인명과 재정의 손실을 입고 굴욕적으로 아프간에서 철군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우디 출신의 이슬람 전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다. 사우디 재벌 빈 라덴 가문 출신인 그는 지하드 전사가 되어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의 정보국, 무자헤딘과 함께 소련과 싸워 승리한다. 그러나 이후 걸프전(1990~91)이 시작되고, 미군이

이슬람 성지 사우디에 영구 주둔하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빈 라덴은 그 자신이 반미주의자가 되어 '알 카에다'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이어 소련의 철군으로 미국 역시 아프간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가운데, 무자헤딘 간의 내전이 벌어지고 여기서 승리한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들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비밀 작전의 부산물이며, 한때 소련이라는 적을 두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라는 사실이다. 빈 라덴을 포함한 9.11 테러범의 90%가 사우디 출신이고, 9.11 이후에 탈레반이 빈 라덴을 보호한 것, 그리고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수도 근처인 아보타바드에

5년 이상 숨어 있다가(아마도 파키스탄 내의 협력 세력에 의해 보호받다가) 사살된 배경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9.11 이후 조지 부시나 새뮤얼 헌팅턴 등은 문명충돌론을 토대로 9.11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문화와 체제를 증오했다 해서 벌인 사건으로 정의했으나, 《블로우백》을 쓴 찰머스 존슨은 9.11은 미국이 과거에 벌인 비밀 군사개입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빈 라덴은 파나마의 노리에가나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한때 미국의 가까운 협조자가 있다가 적이 된 인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9.11 이후 미국은 과거 역사를 성찰하기보다 애국주의의 광풍에 휩싸여 이슬람이나 테러리스트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규모의 군사개입을 시작한다.

2. 아프간 전쟁(2001~2021),

그리고 이라크 전쟁(2003~2011)

빈 라덴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하자, 미국은 2001년 10월 초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다. 이는 대규모 군사개입이 아닌 공중폭격과 CIA 특전단, 미군 특수부대 활용과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개전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이 북부동맹에 함락된다. 이후 탈레반은 패퇴하여 파키스탄 인근 남부 산악지대에 은신하고, 빈 라덴은 도주한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받았고 빈 라덴이 탈레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적인 명분이 있었고, 나토 등 동맹국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손쉬운 승리에 취한 부시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안정시키고 탈레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기보다, 또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부시는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지목한다. 이 표현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주적인 ‘추축국들Axis powers(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냉전기의 주적인 소련을 지칭하는 ‘악의 제국Evil empire’을 의도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세 국가들을 21세기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적들만큼 위협적이지도 않았고, 상호간 동맹국도 아니었다. 북한은 두 중동국가와 별 관계가 없으며, 후세인 정권은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로 과거 거의 8년간 전면전을 치른 철천지원수였다. 또한 이들은 알 카에다와도 무관했다.

그런데도 부시는 후세인의 이라크가 알 카에다의 9.11 테러와 연관이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부시는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네 미국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이라크를 내버려두면, 핵 테러 공격을 당해 미국 영토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도 있다며, 9.11의 충격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공포심을 부추겼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주요 증거는 세 가지였다. 1) 이라크가 알루미늄 튜브를 수입했는데, 이것이 핵농축을 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만들 목적이라는 것, 2)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서 옐로우케이크(핵무기 원료인 노란색을 띠는 우라늄 정광)를 수입했다는 거래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 3) 비행기를 개조해 무인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라는 것 등이었다. 이 외에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이라크가 사찰을 피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개조한 이동식 생물학 무기 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유엔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의회 차원에서 이를 조사해 이라크전 정보력 실패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근거들은 하나같이 과장되고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알루미늄 튜브는 재래식 무기인 로켓을 만드는 용도였고, CIA는 자체 실험을 통해 이것이 원심분리기에 사용되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그것이 핵농축을 위한 것이라는 같은 주장을 고집했다. 옐로우케이크 거래 문서도 한눈에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조작한 위조문서로 드러났으나, CIA는 이를 부시에게 보고해 부시가 국정연설 중에 전 국민 앞에서 그것을 사실인 양 강조하기도 했다. 미 공군의 분석에 따르면 무인기 개조도 생물학 무기 살포가 아닌 정찰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 역시 CIA에 의해 무시되었다. 이동식 생화학 무기에 대한 정보는 ‘커브볼’이라는 암호명의 이라크 망명자에게서 나온 정보였는데, 그는 이라크 정부에서 일한 적이 없는 성범죄자였다. 난민 캠프에서 벗어난 그는 CIA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모든 정보를 자신이 꾸며냈다고 실토했다. 또한 체니 부통령은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알 카에다 멤버인 모하메드 아타가 9.11 직전 체코에서 이라크 요원과 접촉했고, 알 카에다와 연관된 알 자르카위가 이라크 정부와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것 역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무슬림이었지만 세속주의 독재자였던 후세인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 카에다의 이라크

활동을 경계했다. 뿐만 아니라, 알 자르카위도 후세인 치하에서는 활동이 없다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혼란을 틈타 알 카에다 지부를 이라크에 창설하고 발전시킨 것이었다. 즉, 알 카에다-후세인 커넥션 의혹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의 주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 이라크의 알 카에다 지부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2004년에 창설된 것이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벌어진 참혹한 결과를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결정이 위와 같이 황당한 증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부시 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은 CIA 등 정보기관이 제공한 첩보들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당시 CIA와 정보 분석가들은 이미 부시 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았고,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이 계속해서 이라크와 알 카에다의 연관성,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넣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첩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첩보들도 하나의 명분일 뿐이었고, 부시 정부는 9.11 전후에 이미 이라크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언들도 많이 공개되었다.

부시 정부의 대테러담당 조정관인 리처드 클라크는 9.11 이전에 자신이 알 카에다의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경고했으나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은 이를 무시하고, 빈 라덴보다 후세인 정권 전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이들 네오콘들은 이미 1991년 걸프전 당시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 전복을 주장했으며, 언젠가는 끝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클라크에 따르면 펜타곤이 공격받아 아직 불타고 있는 9.11 당일 저녁에 이미

럼스펠드는 이라크 침공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럼스펠드는 9.11은 “세계 질서를 재편할 기회를 제공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국방부 부장관이자 유명한 네오콘인 폴 월포위츠 역시 이라크를 점령해 석유자원을 활용하면 전쟁 비용도 자체 조달 가능하다며, 이라크 침공을 적극 주장했다. 체니는 과거 할리버튼의 CEO였는데, 전쟁이 개시되자 그의 회사는 국방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또한 그는 전쟁 직전에 에너지 회사 CEO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에서 오간 문서에는 이미 이라크 유전의 위치와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유기업들의 목록이 언급되어 있었다는 것이 정보 공개법에 따라 드러나기도 했다. NATO 사령관직 등을 역임하고 퇴역한 4성 장군 웨슬리 클락도 2007년, 진보 매체인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에 출연해 충격적인 인터뷰를 한 바 있다. 9.11 직후인 9월 20일, 클락은 미 국방부에 방문해 럼스펠드와 월포위츠 등을 만나고, 아래층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과거 자신과 일했던 한 장성을 만났는데, 그는 조용히 “그들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몇 주 후, 아프간 공격이 시작되자 클락은 다시 펜타곤을 방문해서 같은 장성에게 ‘이라크를 정말 침공하냐’고 물었는데, 그는 럼스펠드에게 받은 메모를 가리키며 그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향후 5년간 7개의 중동국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라크로부터 시작해,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을 끝장낼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리스트의 모든 국가들로 공격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이라크와 리비아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시리아에도 내전과 군사개입이 있었다. 만일 이슬람국가IS의 발흥과 러시아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시리아 정부도 붕괴되었을 것이다. 특히 네오콘들은 상당수가 유대계거나 확고한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유명한 인사들로, 이러한 거대 전략의 주목표가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적은 레바논, 소말리아, 수단을 제외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이란뿐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경파는 이란 공격을 오래전부터 거론해 왔다. 문제는 소수의 네오콘들이 미국의 국민이나 의회가 알기도 전에, 전쟁 명분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나 알 카에다와의 연관성이 논의되기도 전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리고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신들의 숙원인 이라크 전복과 중동 질서 재편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9.11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진 엄청난 파국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감옥에 간 사람은 없었다. 과거 미국의 이란, 이라크 정책도 이라크 침공의 모순과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1953년 미국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던 이란의 모사데크 정부를 CIA 비밀작전으로 뒤엎고, 친미세력인 샤의 절대왕정 체제를 만든다. 그 역풍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해 이란은 반미국가로 선회한다. 이슬람 혁명의 수출과 국내의 시아파를 우려했던 이라크의 후세인이 1980년 이란을 침공해 1988년까지 양국은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 이때 반미국가가 된 이란을 미워한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후세인을 지지하고, 심지어 이라크의 민간인 학살과

화학무기 사용도 묵인한다.(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이란-콘트라 사건에서 보듯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이라크 석유산업의 민영화를 후세인이 거부하면서 둘 사이는 틀어지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부터 시작해 걸프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거치면서 미국은 마치 후세인을 절대악인 것처럼 규정하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은 이처럼 후세인을 지원했던 과거가 있다.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부시 정부의 또 하나의 중대한 오류는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과 후세인의 이라크 같은 독재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테러조직은 영토와 본부가 없고 자살공격을 감행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억제전략을 적용하기 힘들다. 하지만 후세인의 이라크는 독재국가일지언정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생존을 우선시하는 국가로서, 미국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대량살상무기도 없었지만, 그것이 있었다면 미국에 사용하거나 테러조직에 넘겨 미국을 공격한다면, 역시 보복을 당해 이라크는 종말을 맞았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선제공격이 아니더라도 억제 전략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무리하게 이라크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고, 결국 중동에서 지옥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와중에 한국계 법학자이자 버클리 교수 출신으로 체니 부통령에게 법률자문을 했던 존 유는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된 심문(enhanced interrogation(각종 고문)), ‘특별 송환(Extraordinary rendition(고문이 가능한 나라로 테러 용의자를 납치하는 것)), 그리고 ‘영장 없는

감시사찰(Warrantless Surveillance)’ 등을 합법화해 주었는데, 이는 아부 그레이브와 관타나모 기지에서 벌어진 악명 높은 인권유린과 가혹행위를 방조, 조장하는 빌미가 되었고, 부시 행정부는 견제장치 없이 더 막강해졌다.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임무완수 (Mission Accomplished) 선언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은 대량 공중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간단히 후세인 정부를 붕괴시켰는데, 이를 기념하여 부시는 5월 1일 전투기로 항공모함 갑판에 착륙해 ‘임무 완수(Mission Accomplished)’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러나 이는 임무 완수가 아닌, 긴 악몽의 시작이었다.

2004년 미국은 이라크 정부를 회복하고 군대를 육성해 이라크를 간접적으로 통치하겠다는 ‘이라크화(Iraqification)’ 전략을 추진하는데, 이는 처참하게 실패한다. 중동 국경은 과거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붕괴시킨 영국과 프랑스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이라크는 다수인 시아파, 그리고 수니파와 쿠르드족의 세 그룹이 한 나라로 묶인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수니파인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장기 집권하면서

다수인 시아파를 누르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수니파 중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중주국 이란 사이에서 민감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군이 후세인의 수니파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부와 군대에서 수니파를 하루아침에 쫓아냈다. 부시 정부는 후세인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민주주의가 쉽게 정착되리라는 단순한 사고로 접근했지만,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 그룹으로 철저히 분열되어 있던 이라크에서 자유선거는 오히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새로운 정부를 시아파가 주도하게 되자, 기득권을 잃은 수니파는 미군에 대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시아파와는 내전을 시작한다. 이에 종교적으로 수니 국가인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은 이라크 수니파를, 시아파 중주국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를 지원해, 이라크와 중동은 함께 대혼란에 빠져들어 간다.

럼펠트는 대규모 지상군보다 기술력과 기동성에 집중해 이라크와 아프간 두 개의 전쟁을 한 번에 치를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집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아프간과 이라크를 안정시키려면 더 많은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장성들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 역시 두 나라의 안정화를 어렵게 했던 요인이다. 미군의 강력한 화력과 기술로 적국의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게릴라전에서 승리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미군이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지상군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2007년에 부시는 전략을 수정해 '이라크화'를 중단하고 '서지The Surge', 즉 3만에 달하는 병력을 증파해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은 17만 명에 이르게 된다.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군사개입에 대한 미국인들과 이라크인들의 피로감은 커져만 갔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78%의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갈등을 더 유발한다고 생각했고, 71%는 상황의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의 전면 철수를 바란다는 여론이 나왔다. 그에 따라 2008년 대선에서 당선된 오바마는 이라크 철군을 추진하게 되고, 2011년에 철군을 완료한다.

3.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의 흥망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슬람국가IS의 부상은 이라크의 불안정과 시리아의 내전을 배경으로 한다. 알 카에다-후세인 커넥션으로 부시 정부에게 지목된 알 자르카위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자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2004년에 이라크에 알 카에다 지부를 만들고, 2005년에는 시아파에 전면전을 선포함으로써 수니파를 규합한다. 그러나 2006년에 그는 미군에 의해 살해당하고, 2007년 미국 병력 증파 이후 알 카에다의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다. 이후 2010년에 미군이 철군하자 이라크의 알 카에다 지부는 '이라크 이슬람국가'라고 개칭하고,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라는 이슬람 성직자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다. 새로운 지도자 알바그다디라는 시리아 내전 중이던 2012년,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해 알 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만들고, 2013년 4월에는 두 나라의 지부를 통합해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라는 의미의 '이슬람국가IS'를 창설한다. 원래 시리아와 이라크가 나눠진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은 것에 기인하는데,

이슬람국가IS는 이처럼 두 나라의 통합을 통해 제국주의의 흔적을 지우고 정교일치 사회인 칼리프 국가를 부활시킨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다.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독재와 부패,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2010년경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중동국가들을 휩쓸기 시작한다. 수십 년간 아사드 가문의 독재하에 있던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고, 이를 정부군이 무력 진압하자 그에 저항하는 반군이 일어나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다. 시리아 역시 프랑스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국가로, 수니파, 시아파, 알라위파,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 등 다양한 종파가 섞여 있었다. 알 아사드 가문은 시아파의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로, 다수인 수니파를 억압한 역사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군은 처음에는 민주주의 저항군의 성격을 띠었으나, 갈수록 IS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과 이라크전의 피로감으로 시리아에 대한 전면 군사개입을 주저한 채, 공습과 반군 지원을 통해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란은 범시아파인 시리아를 지원했고, 시리아에 해군기지를 갖고 있는 러시아도 시리아를 지원하면서 전세는 더욱 복잡해진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의 모습

아사드 정권은 반민주주의와 반이스라엘을 지향해 왔고, 시아파 이란이 시리아, 레바논의 헤zbollah,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과 협력해 반이스라엘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내전으로 아사드 정부가 약화되는 틈을 타 수니파 중심의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에서 엄청나게 성장하자, 이제 미국은 시리아에서 누가 이기기를 바라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IS의 발흥은 부시의 이라크 침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IS의 대부분은 후세인 정부에 있다가 미군에 의해 쫓겨난 자들이거나, 수니-시아 내전에서 원한을 품은 수니파들이었다. 부시 측은 오바마가 2011년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해 IS가 성장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이라크와 미국의 여론을 볼 때 엄청난 숫자의 미군이 이라크에 영구 주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오히려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해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리고 중동의 균형을 무너뜨린 부시 정부의 무책임한 침공 결정이 IS 발흥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는 국가가 아니기에 영토를 점령하지 않고 정규군이 없이 테러공격만을 수행했으나, IS는 국가로서 영토를 점령하고, 세금을 걷고, 유전을 장악하여 석유를 판매하고, 정규군까지 운영했다. 그리고 인터넷 잡지를 발행해 자신들의 이념과 활동을 홍보하고, 채팅으로 지하디스트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심지어 포로를 참수하고 화형시키는 장면들을 고화질 영상으로 중계해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미군이 육성한 이라크군은 치안과 방어에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IS의 공격에 도주하기 일쑤여서, 이들이

버리고 간 미국의 무기들과 장비들이 IS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IS의 성공과 확장은 근대 역사에서 언제나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패배만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고, IS로 더 모여들게 했다.

2013년에 창설된 IS가 2014~2015년에 들어서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자, 2016년부터 오바마 정부는 이들을 격퇴하는 것에 군사적 힘을 집중하게 된다. 오바마 정부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이라크와 2015년 핵 합의를 체결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것도, IS라는 공동의 적이 생겨서였다. 이후 미군과 러시아군의 공습이 지속되고, 터키군, 시리아 정부군,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 이라크 정부군 등이 모두 이슬람국가IS와 맞서 싸우면서 이들은 점차 약화된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2017년부터 시리아 반군, 쿠르드군 등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그해 말에는 이슬람국가IS가 주요 거점을 잃고 크게 축소된다. 그리고 2019년 10월 리더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하면서, 이제 IS는 국가 형태가 아닌 각국의 지부들을 중심으로 테러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이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이라는 혼돈 속에 커 가다가, 위협을 느낀 주요 국가들의 집중 공격으로 붕괴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마침내 IS는 무너졌지만, 이라크전이라는 미국의 무모한 결정으로 시작된 연쇄 작용의 결과는 참혹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침공 이후 이라크에 7500억 달러가량을 쏟아부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민간인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미군 전사자는 5천여 명, 부상자는 3만여 명이 넘었고, 미군의 자살률은 2001년 이후 31%나 증가했다. 한편 IS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민간인 15만 명을 살해했고, 국제 테러로 2천 명 이상을 살해했다. 결과적으로, 시리아에서는 10년간의 내전을 통해 4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 숫자로 보아도 엄청나지만,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이 배어 있다.

4. 아프간의 혼란과 미국의 철군 결정

앞서 말했듯, 부시 정부는 2001년 10월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 정부를 손쉽게 함락시킨 후 관심을 이라크로 돌렸다.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부시는 '악의 축'을 언급했고, 2002년 3월 12일 언론 브리핑에서는 빈 라덴의 테러 네트워크가 무력화되었기에 그를 추적하는 데 큰 관심이 없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후 미군 병력 상당수가 아프간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의 수령에 빠져드는 동안,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게릴라전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편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부시와 반대로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고, 9.11과 관계있는 아프간전에 집중하기 원했다. 그에 따라 오바마는 2009년 아프간에 병력을 증파했고, 2011년에는 마침내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하기에 이른다. 이후 2014년에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미군도 아프간 정부와 군대에 역할을 넘겨주고 발을 빼고자 한다. 그러나 탈레반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2015년 미국은 급기야 철군을 취소한다. 당시 카르자이의 아프간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악명이 높았고, 카불 외부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고 IS가 발흥하면서, 중동 개입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은 더욱 높아졌다. 결국 오바마도, 트럼프도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탈레반과의 협상을 시작한다. 2020년 2월 트럼프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방침을 밝혔고, 바이든은 금년 4월 완전 철수를 결정했다. 특히 바이든은 9.11 20주년 이전에 미군 철수를 완료하여 손을 씻으려 했는데, 그는 적어도 카불이 탈레반에 위협받는 일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미군의 빠른 철수는 탈레반의 공세를 오히려 가속화했고, 아프간 대통령이 도망치고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카불을 함락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미국은 헬기를 동원해 자국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시키며, 1975년 4월 베트남의 사이공 탈출과 유사한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 9.11 직후 시작되어 20년간 지속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2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미군도 2400여 명이나 사망했다. 또한 아프간 정부군에서는 65,000여 명, 탈레반 등 반군 측에선 75,000여 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안정적인 민주 국가 수립은 고사하고 미국이 지원한 아프간 정부는 너무나 힘이 무너져 내렸으며, 미국이 패퇴시켰던 탈레반은 다시 아프간을 장악했다.

5. 무엇을 배우고 기억할 것인가?

미국의 20년 군사개입은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보면 실용주의만

강조하고, 역사의식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프간은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게릴라전에 용이하고 국민성도 용맹하여, 그 이전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점령하기 어려웠던 땅이다. 멀게는 알렉산더 대왕도 고전했고, 대영제국도 세 번의 전쟁을 치르고 겨우 빠져나왔으며, 소련도 1979년부터 10년의 악몽을 치룬 터라, 소위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던 나라였다. 미국은 소련을 아프간에 끌어들이 10년의 악몽을 선사했음에도, 자신도 그 땅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무모함을 보였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톡톡히 경험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에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소개한 '제국적 과잉팽창(Imperial overstretch)'의 문제의식은 오늘도 유의미하다. 조작된 것으로 폭로된 1964년의 톱깅만 사건 이후 미국은 베트남에 10년여 동안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했으나, 결국 1975년 패배하고 철수했다. 46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지만, 초강대국 미국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제국적 과잉팽창을 했다가 제3세계의 게릴라전에 패배하고 쫓겨난 것이다. 베트남과 이라크에서 보듯 정당한 명분 없이 시작된 전쟁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리고 전쟁 당사국 국민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지난 20년은 초강대국 미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한 국가를 붕괴시키는 데는 유능했으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는 극도로 무능했다. 국제정치 이론 중에 '민주평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시는 이 개념을 이용해 독재 국가를 침공해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면, 세계는 평화로워진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이론 자체는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룬 안정적이고 성숙한 민주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말한 군사개입으로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고, 매우 오만한 허풍이었다. 미국은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을 깨고 파괴와 혼란을 가져왔다. 아프간의 탈레반,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등은 비록 독재였으나 안정적인 정부였다. 이들 국가 중 미국의 개입으로 과거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졌다고 할 만한 곳은 없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살육과 파괴가 벌어지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조차 무너진 참상을 생각하면, 이 나라의 민중들은 차라리 독재국가 시기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오랜 기간 독재하에 있었던 이 나라들에는 민주주의적 주체가 없었고, 인종적·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근본주의, 극단주의가 세력을 얻어가는 상태에서 통합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댄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다.

중동 개입은 미국의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인들이 9.11로 받은 충격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성찰하는 데 실패하고, 애국주의와 분노, 공포에 사로잡혀 부시와 네오콘들에게 백지수표를 써 주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 중동을 재편하려던 이들은 9.11을 명분으로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 20년간의 정치적 개입을 진행하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침체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월스트리트의 로비를 받아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규제들을 대폭 완화했다가 2008년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며,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그리고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어 사회복지 체제가 위기를 맞고, 유럽과 미국에서 극우 인종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중산층은 끝없는 중동 개입과 경제위기, 세계화와 일자리 상실 등에 분노했다. 그런데

아프간은 국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게릴라전에 용이하고 국민성도 용맹하여, 그 이전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점령하기 어려웠던 땅이다

미국인들은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상 20년간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2008년 경제위기부터 월스트리트와 1%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중산층을 몰락시킨 미국 지도자들이 자초한 바가 크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심리는 트럼프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과 2008년 경제위기 등에 가장 큰 책임은 공화당 부시 정부에 있었고, 오바마는 부시가 터뜨린 재앙을 수습하느라 바빴다. 중산층의 삶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스티브 배넌 등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엘리트들을 싸잡아 비난하며, 워싱턴 아웃사이드인 트럼프를 대안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트럼프가 군사개입을 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신이 상위 1%의 일원이었던 그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보다 중산층의 분노를 이민자로나 중국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또한 트럼프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처참히 실패했고, 그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가짜 뉴스와 인종주의가 판을 쳤다. 급기야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국회의사당이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공격받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 미국인들은 '중국 위협론'을 강조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상 20년간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2008년 경제위기부터 월스트리트와 1%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중산층을 몰락시킨 미국 지도자들이 자초한 바가 크다. 이제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 이후 바이든도 어떤 방식으로든 중동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제와 패권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아프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집권하도록 두는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이슬람주의의 확산과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시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신장의 위구르 인들을 극심히 탄압하고 있다. 그런데 와칸회랑을 통해 신장에 연결되는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외부 이슬람 세력이 위구르와 연대한다면 중국의 안정에도 위협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중국이 군사개입을 한다면 소련, 미국이 경험한 악몽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의 사이클론 작전에서 파키스탄 정보국은 소련을 아프간에서 몰아내는 것을 넘어, 이슬람주의를 소련 내로 수출해 소련 해체와 더불어 구소련 국가들 중 6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지원했었다. 물론 탈레반 정부는 현재 다소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최근 파키스탄 정부도 매우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탈레반 지도자와 만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미국의 중동 개입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부시가 당선된 후 ‘악의 축’을 발표하며 조성한 긴장 국면 속에서, 2002년 2차 핵 위기가 터졌다. 그에 따라 클린턴-김대중 시기 진행되던 대북 협상과 제네바 합의는 중단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부시 정부와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데도 큰 애를 먹었다. 부시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관점과 단순한 선악의 논리로 북한을 인식했으며, 부시 정부에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드물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북한 문제를 대테러전쟁의 하위 과제로 다뤄 한반도의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또한 부시 정부는 이라크전을 추진하면서 기존 동맹국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자 노무현 정부에 파병 압력을 넣었고, 이는 한국 정치에 큰 갈등과 파장을 몰고 왔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한미 관계 역사상 최대의 압력이 왔다거나, 이라크 파병을 하는 대신 북한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 달라는 일종의 빅딜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말도 있었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논쟁이 벌어졌다. 부시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세력이나 평화주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불의한 전쟁에 참여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보수 쪽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며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 적극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적으로 진보개혁 세력의 지지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전투병이 아닌 평화지원 중심의

파병을 일종의 타협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의 특수성과 한반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전쟁 명분도 증명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완전한 실패였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을 굽히고 현실주의적 선택을 해서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한국의 현실 속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에, 이 사건을 복기하고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주의적 국익, 그리고 진보와 평화의 원칙 사이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접점을 찾아가는 것,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 문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라는 현실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한국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며, 정의와 평화를 우리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국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9.11 20주년과 미국의 중동 군사개입 20년을 복기하며, 고통받은 수많은 이들을 추모한다.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갈등과 두려움, 군사력과 안보에 대한 집착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우선하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P



〈September 11〉 By Akmal Mizshakarol

"우리가 내란을 겪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걱정했죠. 그리고 더 나은 것,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것, 나쁜 꿈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길 바라던 때였습니다."

〈도덕적 상상력 (The Moral Imagination), 존 폴 레더락 저, 김가연 옮김, 2016, 글항아리) 중

평화저널 <플랜P>
5호 특집 포럼

포스트 9.11, 낯설게 보기

정리 장인희, 김가연

《플랜P》 제5호 특집 포럼은 ‘포스트 9.11, 낯설게 보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수요일 오후, 정주진 소장(평화갈등연구소), 정육식 대표(평화네트워크), 명야핑 활동가(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이야기를 나눴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포럼에는 30여 명의 참여자들도 함께했다. 사회는 김상덕 기획위원이 맡았다.

김상덕(사회)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주진 평화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고, 1인 연구소 ‘평화갈등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고, 6월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계기로 9.11을 오랜만에 떠올려보았습니다.

명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서 제가 한국인이 아닌 줄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온라인에서 활동가 색출작업을 하고 있어서 활동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시민사회에서 반전운동이 형성되었던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처음 《플랜P》 5호의 키워드를 9.11로 정했을 때, 20년 전 일을 왜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감 있게 느껴지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되짚어 보면 9.11이 일으킨 변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포스트 9.11’ 체제를 낯설게 보고자 합니다. 9.11은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테러’라는 말도 9.11을 기점으로 일반화되었지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9.11을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각자 9.11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주진 저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에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TV를 보고 온 친구들이 “빌딩에 비행기가 꽂혔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진주만 이후 가장 큰 공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갈등전환학’ 대학원 과정이라는 특수한 환경 덕도 있었을 테지요. 학교에서는 공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미국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어린 학생의 이야기에 흔들리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정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소수 지식인들은 미국이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본다며 매도당했습니다.

스페인어가 유창해서 국방성에서 통역 업무를 하던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도 기억합니다. 테러 후 이슬람 혐오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이웃 무슬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웃집 잔디밭에 의자를 놓고 신문을 읽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죠. 파키스탄 출신 동료의 아이는 유치원에서 '테러리스트'라고 놀림을 받아 힘들어 했습니다.

정육식 저는 2001년 9월 11일 오전에 주한미국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의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 설득하고자 한국시민단체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것을 시행하겠구나, 그것을 위해 북한이 계속 미국의 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한 느낌으로 대사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쌍둥이빌딩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서 TV를 켜니 너무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객기가 쌍둥이빌딩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 장면과 오버랩되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명아쟁 9.11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등의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사람들이 9.11만큼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복무 당시 외교기밀을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건네 7년을 복역했던 첼시 매닝(Chelsea Elizabeth Manning)의 자료 중에 공군이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죽게 만든 영상을 본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첼시 매닝이 수감되고 석방되는 과정을 보며, 9.11 이후 미국이 저지른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김상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회자 좋은 지적입니다. 9.11이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사건들이 9.11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9.11을 그날 하루의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혹은 맥락의 연속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9.11의 의미나 원인에 대해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육식 개인적으로 2001년 9월은 평화네트워크 단체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운영이 힘들다고 느끼던 시기여서 단체를 그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9.11 이전부터 2003년쯤에는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9.11 이후로 그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평화활동에 계속 몰두하고자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11 이후 미국의 정책결정이나 위협인식의 우선순위에 새롭게 관심이 갔습니다. 부시 정부 당시 내부적으로 이미 테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었는데, 왜 그것이 무시되고 현실가능성이 없는 정보들만 많아졌는지 궁금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핵심세력 대부분이 군수산업체들과 이해관계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가상의 위협을 터트리면서 군수산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9.11이 미국의 자정 기능이나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기보다 일방주의를 더 극대화하여, 오히려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에 백지수표를 주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명아쟁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에는 음모론에 솔깃했습니다. 펜타곤(미국국방부)이 알고도 방지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의심했죠. 지금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비판적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11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국주의 세력들이 패권을 관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불법 행위나 기행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는 것, 특히 중동을 침략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대표적이죠. 미국도 9.11 때문에 침략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벌여왔던 일들의 결과가 파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9.11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주진 소장 / 평화갈등연구소

* 대한민국이 UN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났다. 통신키커 끊긴 그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 모가디슈를 탈출해야 한다(출처: 다음영화)
*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영토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쟁을 일컫는다. 처음에는 흔히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 불렀지만 1992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내전으로 정의를 수 없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6개 구성 공화국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출처: 위키피디아)

정주진 냉전이 종식된 후 세상이 원했던 것은 냉전과는 다른 세계, 즉,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소련과 미국의 억압이 풀리며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공백까지 생기면서

1990년대는 또 다른 잔혹시대가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 새로운 내전이 발생했죠. 최근 영화 [모가디슈](2021, 한국)*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당시는 전 세계가 소말리아를 구하기 위해 매달렸던 시대였습니다. 미군은 소말리아 반군세력에 패전했고, 그 후 르완다 내전도 있었지만 소말리아의 영향으로 미군이 르완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2001, 미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말리아 내전 당시 '블랙호크다운'이라는 전투기가 추락했고, 반군세력이 미군을 밧줄로 묶어 끌고 다니던 영상이 CNN으로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반감을 일으켰고 미국은 르완다 내전에도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있었습니다. 내전의 양상이 전과 다르게 부족과 종교 세력에 의지하고, 야망 있는 세력들은 그것을 내전에 악용하는 학살도 심하고 잔혹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9.11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자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내용의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억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을 탄압하고 공격했던 것들,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가지고 외교 정책, 무역,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구조들을 지적했습니다. 냉전 후 열린 나쁜 방식의 새로운 세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여러 문제들, 거기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두 강대국이 지역의 전쟁들을 억누르면서 전쟁 상황을 관리하였다면, 9.11 이후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동맹국들도 동참하는 방식이 된 것 입니다. 저는 직업상 수시로 이라크나 아프간의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이 미국이라는 최강국의 이익을 위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냉전 종식 후 새뮤얼 P.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다양한 내전이나 민족 간의 학살 등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좋지 않은 결과의 책임과 원인을 지역이 아니라 왜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일까요?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주진 모순적이지만, 사람들이 미국의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 투표권은 전 세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미국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미국이 마음먹으면 세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9.11의 충격으로 테러범을 잡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이 의회 승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침공의 사전 작업이 조금 이상한 방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탈레반이 얼마나 여성을 억압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되었죠. 그것이 9.11과 상관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탈레반은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미국은 여론을 움직여 아프간 침공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성향의 부시가 극이슬람주의인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욕망이 결합되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 대립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사회자 중동국가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을 지지하거나 숨겨주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이것이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테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정육식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알 카에다 이전 조직들이 1980년대에 주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소련에 맞서 싸웠습니다. 1990년대 초에 1차 걸프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영구 주둔하게 됩니다. 클린턴 정부 막바지에 추진한 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이 집권하자 협상이 무산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부시 정권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반감이 높았습니다. 사우디 귀족 출신들, 즉 교육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9.11 테러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1980년대에는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했는데, 그 동맹이 무너지고 사우디에 기지를 세우고 평화협상이 무산되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던 차에 그 반감들이 표출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9.11 전에는 국가 간 전쟁이 문제였는데, 9.11 이후 테러가 중심이 되었고 그 원인을 아는 것이 테러 방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정치적 공백이 있는 지역에 테러나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권력을 누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지요? 또한 테러가 발생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주진 9.11 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의 시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다수의 이슬람 국가를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저항, 즉 미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 구도가 가장 파급력 있는 구도인데, 미국이 기독교 대표 국가이기에 가장 좋은 타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세력은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당한 논리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 논리가 테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대다수 무슬림의 논리와도 당연히 다릅니다. 9.11 이후 수많은 테러들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특정 단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테러 세력들의 논리에 동조한다는 것인데, 왜 동조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회에서 소외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자유가 박탈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노를 이웃 사회에 표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잘 대응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9.11 이후 유럽에 테러가 항상 있던 시기에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가장 위험을 느끼는 곳은 공항이었죠. 2001년 12월, 한국 귀국 당시 레이건 공항을 이용했는데, 강력한 보안 검색에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위스 군용 칼(일명 맥가이버 칼)이 공항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졌을까요? 그 이후의 삶에 익숙해졌지만 더 안전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 9.11 이후 일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죠. 20대 전후 세대에게 이러한 공항 검색은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연한 것들 중에서 9.11 이후에 바뀐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낯설게 보기'라고 생각됩니다.

정우식 저는 소성리 할머니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부시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는 ABM조약(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이 있었습니다. 부시 정부는 조약에서 탈퇴하고자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ABM조약은 냉전시대에 핵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죠. 미국 내에서도 이 조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9.11 이후 미국은 ABM조약을

*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은 1972년 5월 26일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탄 요격유도탄을 제한하는 조약이다. 2002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파기했습니다. 9.11 때문에 조약 파기에도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MD 유치에 박차를 가했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사드입니다. 만약 조약이 유지되었다면 MD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미국 밖으로 이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9.11을 낯선 시각에서 바라볼 때,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의 할머니들을 비롯한 지역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아핍 테러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테러’라는 단어를 썼으면 합니다. 테러라는 단어를 테러를 일으키는 특정 집단을 단정하고 사용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전쟁에서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를 막기 위해 민간인과 군인이 같이 쓰는 장소인 발전소를 폭파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의 몫입니다. 저는 ‘낯설게 보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럼 전 아프가니스탄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이 9월 11일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수 자체는 지지해야겠지만, 아프간의 현 상황은 최선이 내전이고 최악의 경우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대는 채로 포럼에 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학살과 대량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난민들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난민을 받아들여 혐오가 커지기도 했어요. 그것이 종교와 결부되어 이슬람 혐오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난민 문제가 9.11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명아핍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낯설게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든 테러든 결국 피해는 민간인이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난민 문제의 배경에는 9.11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으로 인식되고, 그 대립구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11 이후로 미국이 이슬람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혐오와 배제가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주진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은 꾸준히 있었지만 9.11 이후에 보편적으로 확대된 것이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9.11을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기독교 주류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당시에 영국 무슬림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아시아계 무슬림들을 배제하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9.11 이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무슬림들의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이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공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사회의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은 대체로 형편이 좋고 지식층이 많았는데, 9.11 이후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극단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들과 어떻게 교류할 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독교 인구도 많고,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사회의 극소수인 무슬림들에게 선제공격을 일삼았고, 이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유엔난민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곳은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순입니다. 시리아는 내전과 동시에 IS와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IS 세력이 잠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테러는 꼭 무슬림들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목을 끄는 급진적인 테러 단체가 무슬림 중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이슬람과 비(非)이슬람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혐오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난민 혐오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에 고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착화되기 전에 방향을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자 9.11이 준 각인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대구에서 모스크 설립에 관한 갈등이 있었죠. 명아핍 선생님은 한국이나 외국에서의 무슬림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보시나요?

명아핍 9.11과 다르게 21세기에 발생한 많은 테러들은 그 나라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이민자들이 일으킨 것 입니다. 그 나라 고유의 문제이지요. 사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지만 유독 무슬림이 주목을 받습니다. 특이한 점은 테러를 저지른 무슬림의 경우 신앙을 새로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래 지속한 무슬림은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테러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IS 이슈가 있던 직후 2014년에 팔레스타인을 갔을 때, 그 전과 반응이 달라서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현지인들이 팔레스타인 내부 상황과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알리려고 했다면, 이후에는 모두 IS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회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활동가가 아니면 정말 알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 9.11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 ‘한국도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무슬림은 범죄자라는 혐오와 갈등이 커지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환을 위해 안보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안보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욱식 대표 /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우리가 누구이고 타자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달라 보이는 사람에게 배타성을 띠는 것은 천성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을 인정하며 그 이후에 사회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여러분도 9.11 이후 반(反)이슬람주의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 9.11보다는 이라크 침공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면 대립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후세인이 알 카에다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침공을 강행하였고, ‘악의 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이슬람주의를 적극 활용했죠. 거꾸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미국이 이슬람을 점령할 것 같다는 확신으로 반미 감정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저는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9.11의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9.11 이후 미국의 정책적 선택과 언론 조작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이슬람 시각이 각인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자와 어떻게 공존하고 ‘어울려 살 수 있을까’라는 사회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 9.11 20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미국에 의해 희생되는 미국인이 많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희생되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육식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와 언론이 그렇습니다. 이미 부시 정부에서는 9.11 이전부터 이라크 침공 계획이 있었습니다. 9.11을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고, 공격의 정당화 전략 중 하나로 반이슬람주의를 극대화했다고 봅니다.

사회자 그 전략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익의 이유로 전략적 선택을 할 때도 역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정육식 당시 미국은 제국의 꿈이 있었고, 이라크 침공이 제국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가 신발을 벗어던졌던 장면이 미국의 추락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도 세계 최대의 파병을 하면서 ‘국익’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파병으로 얻은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동맹국이 미국을 더 도와야 한다는 한국의 정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성찰 없는 과거를 바탕으로 정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큼니다.

사회자 시민단체와 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주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9.11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9.11의 영향으로 국제 정세는 불안해졌고,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텔레반이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바이든이 ‘너희 나라를 위해 너희가 싸워라’라고 한 발언은 너무 뻔뻔한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이 파병했을 당시 세웠던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 한국군 통역사들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도 파병 철수 후 남겨진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에 의하면 전쟁은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안보의 위기를 느끼면 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무력을 이용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전의 욕구를 전적으로 정부에 맡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9.11 이후 20년 동안 경험한 세계를 반추하여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과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혐오 정서를 반추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보다는 개인을 보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명아평 활동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명아평 요즘은 일상이 파괴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저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왜 그들의 일상이 파괴되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누군가는 그 나라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런 불안함을 만든 것은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면, 원인을 보아야 하지 난민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테러는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쓰는 전략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한 예로, 중국 위구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일본의 극우세력을 키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사찰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집권한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합니다. 국가가 테러를 구실로 우리의 일상의 규범을 바꾸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감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무슬림과 테러리스트의 구분이 어려워져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무슬림 집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주진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슬림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거의 인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구호단체들도 무슬림공동체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지원을 합니다. 난민 속에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걱정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정부가 감시를 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테러’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치적 이익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해치고 공포에 빠뜨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보다는 이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질문 1

정육식 선생님은 9.11 20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나요?

정육식 오늘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이야기 나눌 자리가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오늘 2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야핑 인도주의적인 구호가 테러조직 지원에 쓰이는 것은 아니냐는 논리는 북한에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육식 사실 그 시절이 오히려 추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가 2000년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저는 명야핑 선생님의 질문이 자연스러운 추측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한이 단절되어 있고 그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 그것이 더 우려됩니다.

청중 질문 2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면 어떨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국에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육식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철수의 주된 동기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웃인 한국에서는 그러한 정세도 고려해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진 미국에게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철수는 확정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대한 공격은 계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순적이지만 계속 싸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지속된다면 평화회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프간 철수는 미군과 탈레반의 결정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탈레반의 아프간 탈환 욕구 때문에 내전이 많이 걱정됩니다. 전 세계 언론과 시민단체가 계속 모니터링한다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반(反)난민 정서가 난민을 많이 수용하지 않는 나라들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反)난민 정서는 사소한 문제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적 수준은 난민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것조차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청중 질문 3

매스컴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매스컴이 주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명야핑 올해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하여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다가 2014년의 글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한정적인 정보를 본 사람들이 잘못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에서 보지 않고 대등한 싸움으로 보는 데는 잘못된 언론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이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어서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중동에 관한 뉴스는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스컴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으니, 차라리 언론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주진 선생님께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학살 혹은 내전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여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두 강대국들이 만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명야핑 선생님의 걱정이 너무 잘 전달이 됩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세 분 모두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제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

타자와 어떻게 공존하고
‘어울려 살 수 있을까’라는
사회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는
9.11 20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비주얼라이징 피스>는 9.11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대가'를 살펴봅니다.

미국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의 왓슨 국제 공공정책 연구소(Wat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는 '전쟁의 대가 프로젝트(Cost of War Project)'를 통해 지난 20년 간 미국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인명 손실, 경제 손실, 사회·정치적 손실의 영역에서 분석했습니다. 9.11 이후 전 세계가 치른 대가는 단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도표 몇 개와 숫자로 수많은 탄식과 눈물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꼭 살펴봐야 할 '전쟁의 대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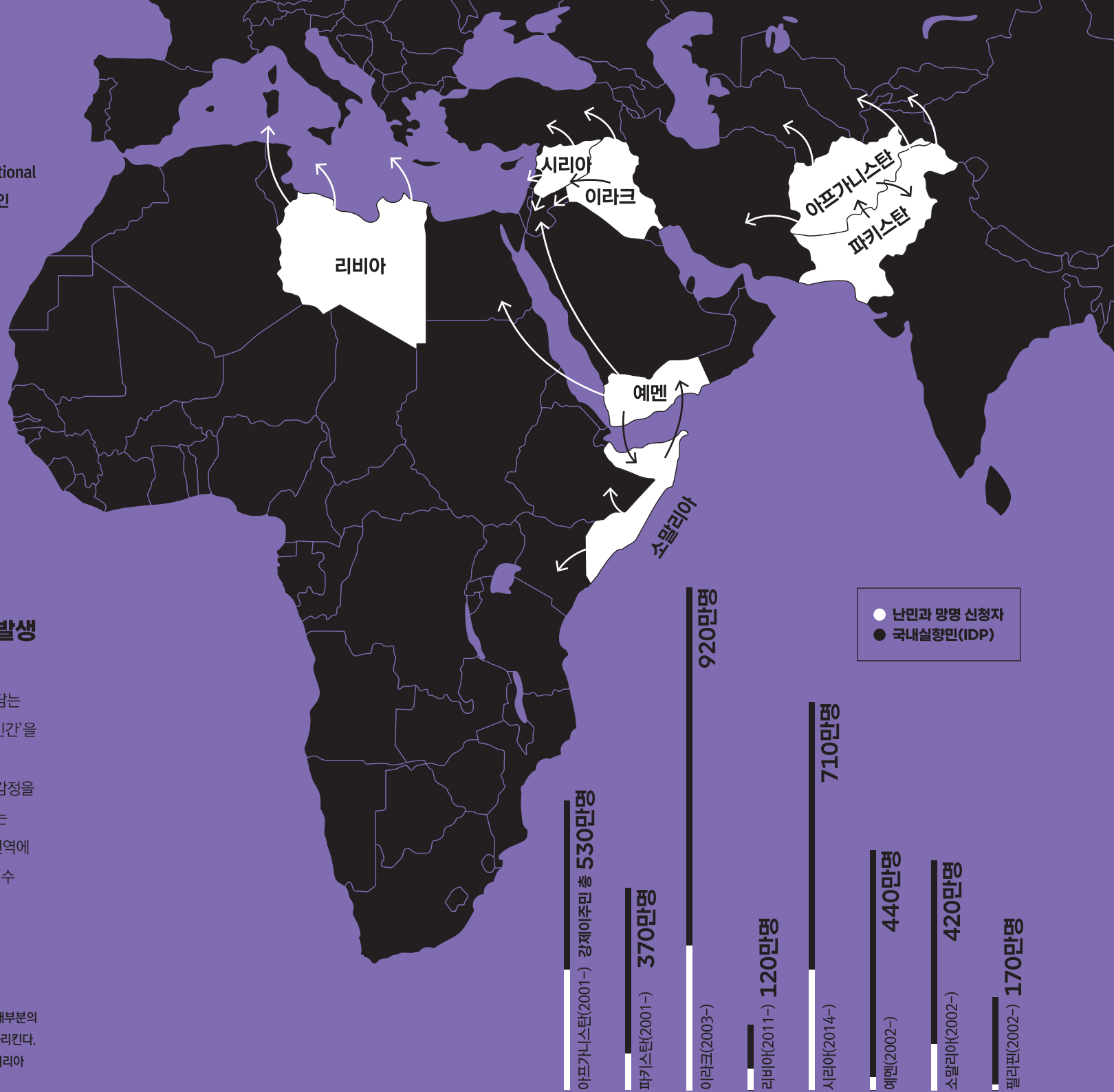
정리 김성한, 김가연

1. 전쟁과 난민 - 전 세계에서 3,700 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

- 9.11이후 일어난 전쟁으로 적어도 3,70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필리핀, 리비아, 시리아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1900년부터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피난 및 이주했던 사람들의 총 합계를 넘어선다.
- 3,700만 명은 최소 추정치다. 9.11 이후 실제로 발생한 난민은 4800만 명에서 59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 3,700만 이주민 중 2530만 명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주민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안전한 삶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 그 어떤 숫자도 이주민들의 피해를 그대로 담는데 한계가 있다. 숫자는 그 뒤에 존재하는 '인간'을 보여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집이나 소속감, 공동체를 포함한 많은 것을 상실했을 때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한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개인, 가족, 동네, 도시, 지역, 그리고 국가 전역에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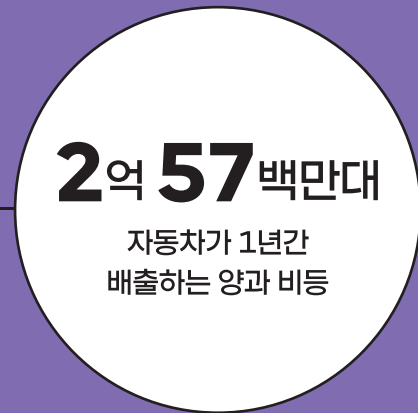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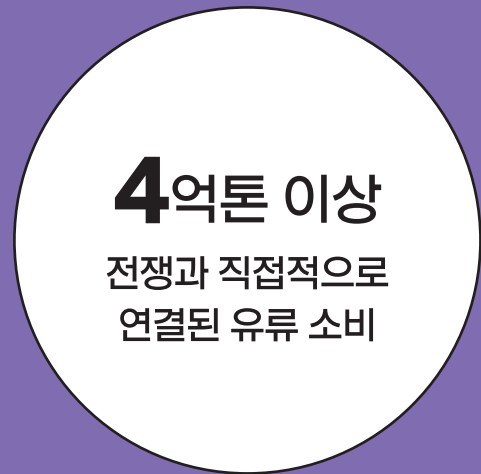
오른쪽 지도 위 화살표는 전쟁의 영향을 피해 길을 떠난 대부분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몰린 3국(영국, 독일, 캐나다)을 가리킨다. 시리아에서 뿔어나온 화살표는 2011~2019년 사이의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다



2. 전쟁과 기후위기 - 친환경 전쟁은 없다

- 미 국방성은 세계에서 가장 유류 소비가 많고 온실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한다. 이는 자동차 2억 5천 7백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등한 양이다. 2020년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7만 대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자동차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차량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라고 볼 수 있다.
- 군사시설 철거나 기지 내 쓰레기 소각 등은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위협하는 수준의 공해를 발생시킨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벌(warlords)이 행하는 불법 벌채와 그로 인한 삼림파괴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파괴로도 연결된다.
- 이라크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환경파괴,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된 독성 물질이 유발하는 암 발병률, 기형아 출산과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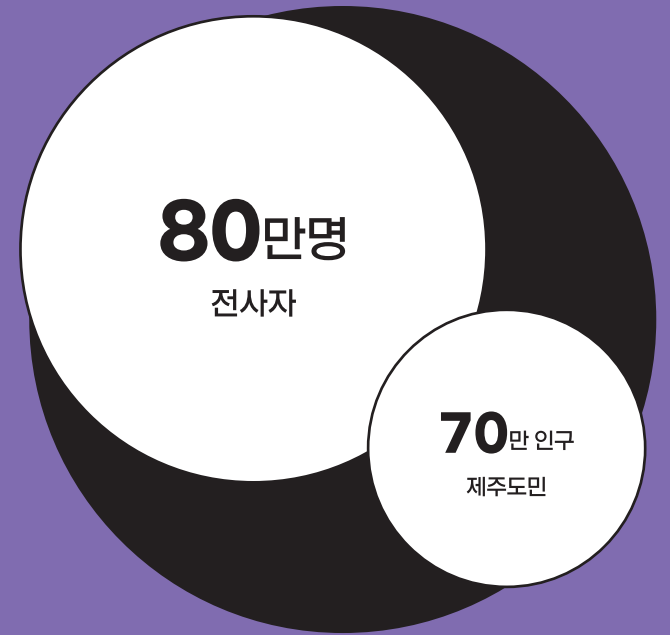
**온실가스 12억톤 : 2001년부터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군이 배출한 총량**



3. 전쟁과 사람 - 80만 명 이상의 전사자

지난 20년 동안 9.11 이후 전쟁으로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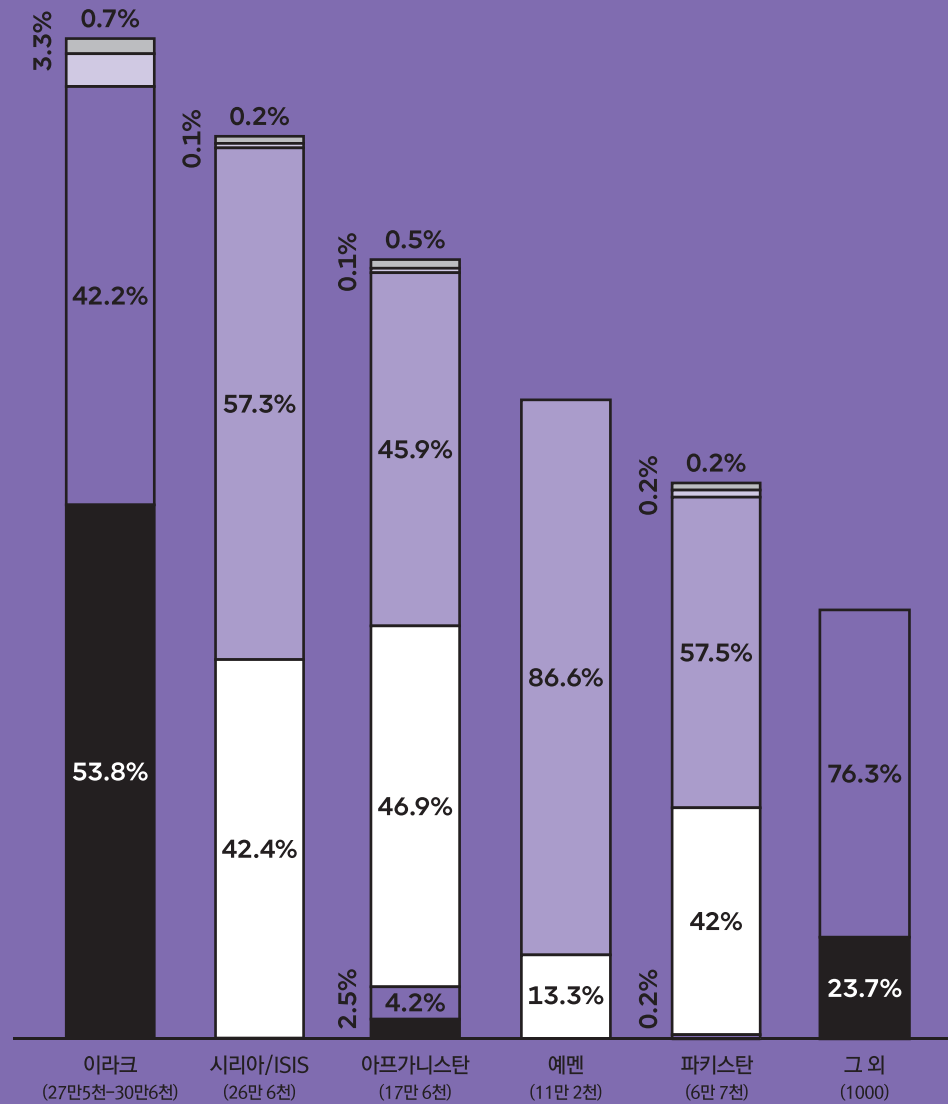
- 202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제주도 인구가 약 70만 명인 것을 볼 때, 이는 제주도민 전체 인구보다 큰 규모다.
- 여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질병, 기근 등 2차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9.11 이후 전쟁의 인명 손실

주요 전쟁 지역의
직접 영향으로 인한 전사자

(단위 : 명)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2001년 10월~ 2019년 10월),이라크(2003년 3월~2019년 10월), 시리아(2014년 9월~2019년 10월), 예멘 (2002년 10월~2019년 10월)과 기타 지역 Neta C. Crawford and Catherine Lutz 2 November 13, 2019

● 미군 ○ 민간 계약업체 종사자 ● 민간인
○ 반군 ○ 기자 및 언론종사자 ○ 인도적 지원 활동가/NPO

4. 전쟁과 기업 - '위장 경제(Camo Economy)'의 등장

- '20년 간의 전쟁'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하이디 펠티어(Heidi Peltier) 보스턴대 교수는 9.11 이후 전쟁은 '미국 정부가 9.11 이후 전쟁들에서 재정적 손해와 인적 피해에 대한 진실을 위장(camouflage) 혹은 은폐하며 군대를 상업화(종종 '사유화'로 잘못 지칭되는)해왔기 때문에 위장 경제'라고 설명한다.
- 2019년 중동에는 총 미군 35,000명과 민간 계약업체 종사자 53,000명이 있었다. 2001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그중 약 8,000명의 민간 계약업체 종사자가 사망했고, 거기에 약 7,000명의 미군 사망자가 더해진다.
- 9.11 이후 전쟁들에서는 대형 방위 계약업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들은 직접 전투에 가담하는 인력은 물론 보급 물자, 병참업무를 제공해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부군과 동맹군에게도 무기를 제공해왔다. 민간 계약은 계속 증가했고, 2011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 계약 종사자의 전쟁 참여가 제복을 입은 군인을 앞질렀다. 2019년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미 중부 사령부의 민간 계약자와 군인의 비율이 1.5대 1에 이르렀다.

- 미 국방성의 예산 중 반 이상이 군과 계약을 맺은 계약업체에게 지불되는데, 2001년 약 140억 달러였던 지불 금액은 2019년에 약 370억 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위장 경제'는 전쟁에 지불되는 인적 피해와 경제적 비용 모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위장하고, 고용된 민간 계약자, 부상자, 사망자의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펜타곤에서 주요 계약 업체들을 통해 형성된 하도급 업체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흐름을 감추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대가는 결코 숫자로 다 담길 수 없다. 사라진 이름들과 그들이 꾸었을 많은 꿈들이 막대그래프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화해의 기로를 달렸던 2018년에는 군수산업체의 주가가 폭락했던 반면, 아프간전쟁 후에는 군수업체 주가가 '1200% 상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P

전쟁의 대가 프로젝트는...

50명이 넘는 학자, 법학 전문가, 인권 운동가, 의사들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9.11 이후 미국이 주도한 전쟁의 실질적인 비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9.11 이후 전쟁'이란 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을 기치로 삼는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과 여타 정부 정책, 그리고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의미합니다.



경험부자 카야의 춤추는 평화



미국인 평화활동가 카야에게 사람들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들 말한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8년, 그중 5년 반은 제주 강정마을에 살면서 카야는 먹는 것, 입는 것뿐 아니라 한국인의 깊은 정서까지도 우리와 닮아 있다. 카야를 만나러 가는 길, 제주의 변화무쌍한 날씨 덕에 폭우를 뚫고 서귀포 강정에 도착했다. 어느새 빗방울은 잦아들고, 고즈넉한 골목 어귀를 돌아 미소를 머금은 카야가 걸어온다. 오랜만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활동가들의 아지트가 되어온 '문 갤러리'에서 파란 눈의 카야와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제주 바닷처럼 유독 맑고 깊다.

인터뷰이 평화활동가 카야(Kaia Vereide)

기록 장인희

정리·글 김유승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결음의 이유

카야,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제주 강정에 살고 있어요.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이곳 강정에서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특별한 경험과 함께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에 온 목적도 평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본래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많은 편인데, 강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평화에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카야의 가족과 어린 시절 이야기도 궁금해요.

부모님은 현재 오하이오에 계시고, 여동생은 2년간 콜롬비아에서 MCC 봉사 프로그램 Mennonite Central

Committee Salt Program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미국 LA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주에 있고요. 가족 모두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님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MCC 봉사단체에서 처음 만나셨어요. 두 분이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것이 저의 대학 졸업 후 진로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부모님이 조지아주에서 봉사하셨던 것처럼 저도 조지아주에 있는 주빌리 공동체 Jubilee Partners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후 생계를 위해 친척들이 사시는 곳으로 옮겨가 정착하셨는데,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 가까이에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저는



카야의 사랑하는 가족들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는데, 예를 들어 마당에 있는 나무들에 보이지 않는 동물 친구들이 산다고 상상했어요. 이 나무에는 호랑이 친구가, 저 나무에는 공룡 친구가 살고 있다고요. 나무를 좋아해서 그렇게 상상하며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미로를 그리거나, 종이 인형을 오리고 종이 인형이 사는 마을과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서 놀기도 했죠. 특히 종이를 오려 눈꽃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좋아합니다. 저는 어른에게도 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많은 상상을 하죠. 어릴 적 자유롭게 놀았던 기억들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세계를 상상하던 것이 지금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 바탕이 되기도 했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죠.

대학에서는 무엇을 전공하였나요?

국제관계를 배우는 국제학과 프랑스어를 복수전공했어요. 국제학에서는 평화와 갈등해결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했고요. 대학생활 중 3-4학년 사이의 여름방학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조지아주의 주빌리 공동체를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졸업 후 다시 주빌리 공동체로 돌아가 그곳에서 2년 반 정도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빌리는 난민을 환영하는 공동체로, 원래 코이노니아 공동체(Koinonia Partners)에서 시작되었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같이 농사도 짓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사업에도 관여했어요. 그러다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멤버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역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코이노니아에서 나와 1979년에 주빌리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면서 주빌리에서는 그 난민들을 어떻게 환영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난민들을 공동체에 받아들여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주빌리의 난민 사역은 198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주빌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특히 미얀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하고, 텃밭을 돌보고, 수영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상의 모든 경험이 좋았어요. 주빌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 덕분에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와 과정도 듣고 싶어요.

사실 주빌리에 더 오래 머물고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주빌리의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조금 망설여졌어요. 일단 제가 국제학을 공부했고, 난민 돕는 일을 해보았으니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다른 나라들을 조금 더 경험하고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빌리의 추천으로 남양주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 Building Institute)에 사무국 스텝으로 오게 되었고, 처음 계획은 1년 정도 머무는 것이었지만 지내다 보니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껴 1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기간에 강정을 방문했다가 평화사역단체인 '개척자들(The Frontiers)'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빌리에서 난민 사역을 도우면서 전쟁이 일어난 뒤에 난민들을 환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정에서 반전운동가들을 만난 것이 꽤 흥미로웠는데, 그중에 개척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개척자들을 만난 후 제가 자원해서 멤버십으로 들어갔어요. 1년은 개척자들의 본부가 있는 양평에서 훈련을 받았고, 2년차에 강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강정에 있으면서 2년 동안 제주팀장을 맡았었는데, 마지막 1년은 팀원이 없이 저 혼자였어요.

강정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많이 외롭지는 않았나요?

그때 개척자들 소속으로 있기는 했지만, 강정에서 다른 여러 친구들과 지낸 시간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척자들의 멤버로서의 정체성보다 강정마을 지킴이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던 시기였어요. 이후 개척자들을 나와 현재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 팀들과 협력하며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 국제팀과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강정 국제팀은 최성희 선생님을 주축으로 다른 분들의 여러 도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팀의 주요 활동은 <<강정 영자신문>>을 만드는 것과 외국 손님들이 강정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에서 주관하는 국제 캠프를 준비하는 일도 해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대면 모임이 힘들어져서 주로 줌(ZOOM)으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못 하게 되거나 그런 상태예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사역 중에서 올해 제가 맡게 된 가장 큰 일은 지난 4~5월에 줌으로 진행했던 <제주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주의에 저항>이라는 세미나였는데,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서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있는 평화연대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올 가을에도 비슷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틴 속에 깊어가는 평화,
그 빛나는 순간들**

**카야가 가장 평화를 느끼는 일상의 시간은
언제인지, 활동가의 일상도 궁금해요.**

저의 하루는 오전 7시 해군기지 앞에서 백배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 시간은 제게 명상의 시간으로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굳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아침을 편안하게 시작하는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지요. 매일 낮 12시에는 ‘인간띠잇기’가 진행되는데, 요즘 제가 사회를 보고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강정을 방문하는 분들이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큼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조용히 깃발을 들고 걸어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에 맞춰 함께 춤추는 시간이 있어 방문자들을 초대하기에 좋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평화 교육의 의미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운동시간이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에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제게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누구나 환영하고 같이 움직이고 전쟁에 대해 반대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좋은 관계망을 만드는 기회여서 인간띠잇기는 저에게 평화를 배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인간띠잇기가 끝나면 강정천에 가서 수영을 하곤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중한죠. 안타까운 것은 현재 강정에 새로운 해군기지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그것이 강정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특히 강정천 위로 다리를 새로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안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는 과정이 강정주민들에게 이미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남아 있는 강정천마저 오염될까 걱정이예요. 강정천의 수원은 비가 오면 한라산 영실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넛길이소’라는 곳에서 사계절 샘물이 올라와 물이 흐릅니다. 이 넛길이소 근처에는 600년 이상 된 신목(神木)인 담팔수나무(제주 자생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있고, 강정천 주변으로는 멸종위기종인 솔잎란과 천연기념물인 원앙새와 녹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급수에서만 사는 강정천 은어도 빼놓을 수 없죠. 해군기지 진입로 공사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예요. 그래서 현재는 강정천을 지키는 것이 핵심운동 중 하나예요. 서귀포시의 50% 주민들이 강정천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정천에서 갈따구 유충이 두 차례 발견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군기지 진입 도로 공사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요.

펜스 밖으로 두 번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구럼비에서는 할망물식당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삼거리식당이라고 부릅니다. 삼거리식당은 자급자족 형태의 봉사원 연대로 이뤄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후원을 하거나 재료를 제공해 주셔서 평화활동가들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4명씩 식당 안과 밖에서 자리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삼거리식당은 여전히 만남을 이어주는 소중한 장소이지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모임을 하기도 해요. 강정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마을을 안내하거나 카약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침 7시 백배, 12시 인간띠잇기, 삼거리식당에서의 공동 식사는 매일의 루틴으로서 제게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줍니다. 저는 무엇보다 루틴을 좋아해요. 루틴 안에서 안전을 느껴요. 변화를 어려워하는 성격이거든요. 친구들 중에는 매일의 루틴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매번 나오지는 못하지만 대신 다양한 새로운 활동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주 새로운 대안적인 예술이나 행사를 준비하거나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함 속에 함께 이뤄가는 팀워크를 통해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간다 해도 여기서 만들어진 경험과 관계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제가 루틴을 지속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러한 루틴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정에 오기 전에 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여러 기반들을

강정천에서 수영을 마치면, 삼거리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삼거리식당은 김종환 삼촌(제주에서는 이웃 어른들을 남녀구분 없이 삼촌이라 부른다.)이 해군기지 반대 투쟁 초기부터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식당이 구럼비 바위 위에 있었는데, 해군기지가 생기면서 해군기지



강정의 평화활동가들과 아침 7시 백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카야

다져 놓은 덕분에 제가 와서 쉽게 저의 역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제가 하는 루틴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오전에 백배를 지속하다 보니 해군에서도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어 백배 시간이 이제는 훨씬 안정화되었습니다. 해군측에서도 더 편안해진 것 같고요. '생명평화백배' 내용을 해군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비록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군을 나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평화재향군인회' 분들도 많이 연대하러 오셨습니다. 하루하루 스며들다 보면 군이 아닌 평화를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루틴을 좋아한다는 카야, 카야는 한 그루의 나무 같다.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의 힘을 아는 이로서, 또한 그것을 즐기는 이로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을 자신만의 내공으로 수용하고 숙성된 열매를 내어놓는다. 가끔은 극렬한 투쟁 한가운데 서서 온몸으로 비바람에 맞서야 하지만, 매일을 버티게 하는 그 루틴의 힘을 통해 카야는 작은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나무로 오늘도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문다.

돈 없는 경험 부자들, 관계망과 팀워크를 통해 이뤄가는 평화 경험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카야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해 왔나요?

초기에 한국어 소통이 너무 힘들었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통역해 줘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가 모임이 다 끝난 뒤에야 “이 모임의 주제는 뭐였죠?”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이해 못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소통이 힘드니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NARPI에서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유치원 친구처럼 소통하면서 천천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강정에 와서는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의 간극이 커서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져 그 둘의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 현재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를 통해 종교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 갱신을 위해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지만, 관광 비자로 있을 때는 3개월마다 다른 나라(주로 오키나와)를 자주 다녀왔어요. 3개월마다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제주 상황과 비슷한 오키나와에서 평화활동 단체들과 교류하고, 제주에 돌아와 그 경험을 나누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2019년 평화의 바다 캠프 제주 참가자들

그래서 가끔 오키나와가 그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단체들에 낯선 경험을 해야 했던 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먼저 주기도 했지만, 저는 주로 옆에서 보고 배우는 편이에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배우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지요.

그동안 한국이나 강정에서 해온 일들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무엇인가요?

NARPI나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지만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같은 행사를 통해서, 평화를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는 풍요로움이 좋아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활동이나 행사가 끝나면 에너지가 방전되어 쉬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힘들어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큰 보람이고 흥미로운 경험들이죠. 우리 활동가들은 돈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부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강정에는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간에 배우면서 경험 부자가 됩니다.

카야도 활동하면서 새롭게 꽃피운 재능이 있나요?

작년에 저와 친구가 함께 살던 집이 헐리게 되면서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작은 전시를 준비하고, 이웃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이 강정평화센터 바로 옆집이어서 평화센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함께 담아, 비록 장소는 사라지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런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죠. 같이 살던 친구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맡아서 팀워크를 통해 진행했어요. 거기에 제가 종이오리기 작품을 냈는데, 그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제가 워낙 종이오리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늘 하던 놀이 같은 것인데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처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앞으로 그러한 예술적인 활동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경험 부자라는 말, 참 멋진 말이다. 돈이 척도인 시대에 경험이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가 아닐까. 침대 하나, 책장 하나, 식탁 하나

그리고 창을 열면 방안 가득 차오르는 너른 하늘... 간소한 삶 위에 특별한 경험을 쌓아가는 카야에겐 그녀만이 간직한 청량하고 고고한 아우라가 흐른다.

포스트 9.11, 당연했던 것들을 낯설게 보기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올해가 9.11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9.11과 관련해 카야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2001년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처음엔 나와는 먼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큰일이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기획 전시에 종이오리기 작품을 전시한 카야

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친구가 "우리 오빠가 전쟁터에 나가겠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그 친구 오빠가 군인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9.11 사건이 자기 오빠가 전쟁터로 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친구가 바로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이였어요. 교과서에서도 현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친구 오빠가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충격을 주었죠. 또, 한 번은 학교에서 여행을 가는데, 공항에서 인도계 친구가 인종차별적인 일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됐어요. 다른 백인 친구들은 쉽게 들어갔지만, 그 친구한테만은 많은 질문을 하고 가방을 열어 물건을 확인하고... 그건 분명 인종차별적인 일이었죠. 그때는 그 친구가 겪은 특수한 일로만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심각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유엔 대표가 되어 진행하는 모의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불가리아 대표를 맡았어요. 그 회의 주제가 '미국 요청에 의해 유엔도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까?'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당시 국제 상황에 대해 잘 몰랐고, 전쟁 반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던 때라 막연히 '불가리아는 작은 나라이니 그냥 큰 나라를 따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럽의 참전에 찬성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았던 학생이 제게 "불가리아가 왜

미국을 따라 하나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를 따라 하지 않나요?"라고 대답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거죠. 대학교에 가서 실제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이후 주빌리에서도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주빌리 멤버들은 전쟁에 쓰이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요. 제가 만일 이러한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는 인종차별이나 전쟁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평생 회피하면서 바깥을 보지 못한 채 제 삶에만 안주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9.11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9.11 당일 제 친구가 자신의 오빠가 전쟁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그때 군인들 사이에서 이미 전쟁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11은 하나의 핑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의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9.11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한 핑곗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9.11이 터진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여객기가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렇구나!' 하며 정부의 의도에 쉽게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 내용은 테러 단체나 갱, 폭력 단체 등에 들어가길 원하는 지원자들의 가입을 막기 위해 사전에 그들을 만나 설득하는 활동을 펼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원자들이 왜 그러한 폭력 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 이유가 단체의 소속감을 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복수를 위한 것인지, 물리적인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인터넷 모집을 통해 유럽에서 시리아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가려고 하는지, 단순히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불의에 대해 복수를 위해 가는 것인지,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나 설득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소외된 것인지 각각의 사정을 듣고, 단체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제 생각에 9.11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보복이나 전쟁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차원의 대응이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서 폭력 단체가 훨씬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 특히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복수를 위해 테러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미국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이후에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된 후 국제 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첫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동맹을 재건하고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등 국제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 것입니다. 9.11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미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나가려면, 제 생각엔 미국의 초기 역사부터 되짚어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초기 역사에서 엄청난 원주민 학살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 서부의 역사는 학살의 연속이었죠. 계속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서쪽으로 전진해 갔던 것이 미국의 초기 역사입니다. 그런 시작으로 볼 때 미국이 자유나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또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부자였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부자로 살고 있어요. 우파에서는 그런 역사를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관한 주제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게 하는 교육 정책 등을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 핵폭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강한 나라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왜 당연한지를 다시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누가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한다고 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실은 독재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힘을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이 가끔 좋은 일도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 전에 다른 면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잘했다고 다른 것들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국인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고도 가끔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강조하죠.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금지조약 같은 것은 전 세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약인데, 미국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Rules-based order(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해서 미해군을 남중국해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규칙^{rule}인지,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규칙인지, 아니면 미국이 스스로 만든 규칙인지 물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중국은 지켜야 하고 미국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미국도 인권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권을 핑계로 북한에 핵폭탄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동맹국들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이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럴 수 있다면 분명히 미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교육으로부터 그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역사를 바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했어요. 원주민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시작했죠.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을 납치해서 억지로 그 학교에 다니게 하면서 원주민 언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폭력을 저질러서 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시신들을 이제야 발굴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마오리 원주민 원어를 공식어로 다시 사용하고 있고, 마오리 문화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나라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 과오를 집중해서 보고, 바로잡아가는 시기가 미국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화란, 상호 존중 속에 함께 밥 먹고 춤추는 것

카아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사람들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다져진 기반들이 있으니 그 연속선상에서 비슷한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강정에 있는 동안에는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나 국제팀,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활동을 계속 함께해 나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예술적인 활동들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들을 꾸준히 잘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루틴을 좋아하는 카아에게 이런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활동가 카아가 아닌 자연인 카아에게 100일의 자유시간이 주어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선택 수업으로 도자기 만드는 수업을 들었고, 특히 중학교 때부터 상상했던 것은 그 꿈을 동아시아에 가서 이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동아시아에 살고 있으니,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하라면 조금 심심할 것 같지만, 100일 정도면 딱 좋아요.

역시 카아는 카아답다. 눈을 반짝이며 재밌는 질문이라기에 은근 기상천외한 답을 기대했건만

그야말로 허를 찔렀다. 도자기... 그 도자기마저 카아를 닮았을 것이다. 카아의 자유는 내지름이 아니라 끌어안음이다. 그래서 더 한계 없는 자유다.

마지막으로, 카아는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정합창단에서 부르는 〈평화가 무엇이나〉는 노래가 있어요. 문정현 신부님의 발언에서 가사를 따서 조약골이 곡을 붙인 노래예요. 이 노래를 자주 부르면서 ‘아,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니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노래로 불러 드릴게요.

평화가 무엇이나

문정현, 조약골 작사 / 조약골 작곡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공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이 노래를 부르면 속으로 ‘맞다, 맞다’ 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말처럼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춤추고, 무엇이든 함께 이뤄나가는 경험, 그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머릿속 추상에서 꺼내어 가슴팍 열정에 물들이고 다시 손발 끝으로 가져와 살아낼 때, 비로소 평화는 내가 되고 네가 되어 춤추기 시작한다. 매일의 루틴을 통해 카아가 빚어내는 평화는 그래서 힘이 있다. 작고 아름다운 강정에 카아가 있다. 평화가 있다. P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말처럼 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춤추고, 무엇이든 함께 이뤄나가는 경험, 그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해요

함께 꾸는 평화의 꿈, 헬프시리아 이야기



월드컬처오픈
WORLD CULTURE OPEN



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날, 두 분의 귀인이 호반의 도시, 낭만의 도시 춘천을 찾아주었다.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서 '춘베리아'로 불렸던 춘천이, 올 여름에는 '춘프리카'로 불릴 만큼 더웠다. 남춘천역에 도착한 두 분을 처음 만났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미디어를 통해 미리 살펴보기도 했지만, 올 초에 출간된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으로 먼저 만나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닭갈비와 막국수로 배를 든든히 채운 뒤, 의암호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우여곡절 끝에 창립한 단체 '헬프시리아'와 두 사람의 '좌충우돌 시리아 돕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이 압둘와합 알무함마드 아가, 김혜진
사진과 글 김복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랜P》 독자들에게 '헬프시리아'와 두 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진 현재 20년차 국어교사입니다. 은사님의 소개로 압둘와합을 만나서 어쩌다가 '헬프시리아' 창립 멤버가 되었고,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라는 책을 쓰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화'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압둘와합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압둘와합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세상을 배우려면 책을 읽거나 자료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 걸어 다니는 책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보다 만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플랜P》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헬프시리아'와 연결되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번 호의 키워드는 '포스트 9.11'입니다. 9.11을 '테러'와 같은 서구 중심의 언어로 공포를 조장하거나 종교적 대립을 부추기는 시각이 아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9.11을 생각하며 '헬프시리아'를 통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헬프시리아'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헬프시리아’가 걸어온 길을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진 ‘헬프시리아’는 2013년 6월 13일에 창립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리아의 내전 이후, 시리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단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극으로 치달아가는 시리아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와합이 아랍어 공부를 위해 시리아에 갔던 한국인 사피웃딘과 글을 쓰고, 여러 지인에게 시리아를 도와달라고 글을 쓰고, 여러 지인에게 시리아를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데서 시작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돕다 보면 지속성이 떨어져 중단될 수 있으니 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야 신뢰를 갖고 후원한다’는 말을 믿고, 와합이 NGO활동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작정 단체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와합에게 시리아 상황을 전해들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창립 모임을 해보니 그저 와합을 돕고 싶은 사람들만 30명 남짓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은 5~6명 정도였고요. 저 역시 단지 친분 때문에 창립 모임에 참석했는데 졸지에 창립 멤버와 운영위원이 되었고, 그렇게 ‘헬프시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리아에 대한 마음보다는, 와합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2014년도에 와합이 다큐멘터리 팀과 시리아에 가서 그동안 모은 금액으로 첫 구호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식량 박스를 사는 데 모금한 400만 원이란 돈이 100% 사용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렇게 직접 돕는 것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압둘와합 저는 상황을 고려할 틈이 없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 편에는 공부만 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들으면 미안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다가 시리아의 시민으로서 독재자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 시민들을 공격하는 러시아에 항의하기 위해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고,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엄청난 숫자의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상황이 내전으로 치달게 되면서, 시위만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시리아의 상황을 외신보도로 잠깐 소개하는 식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발언하는 것으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직접 난민을 도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피웃딘 형님과 후원 조직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친구들과 미디어에 시리아의 급박한 상황을 최대한 알려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리아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돕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는데, ‘일시 후원금을 보낼 테니 통장 사본을 보내라’는 등 단순하고 현실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나서는 무작정 모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상황을 알리는 홍보전단지과 모금함을 만들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단체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알게 되어서 공동으로 행사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에게 ‘시리아’



2019년 10월, 월드컬처오픈이 개최한 글로벌 공익활동가의 축제 '2019 평창세계문화오픈대회(Better Together Challenge)'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헬프시리아.

하면 ‘헬프시리아’가 떠오를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부딪치고 바닥부터 배우며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공감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살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한국에서 마련한 후원금으로 시리아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현재 1,000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금으로 식량을 전달하는 구호활동만 했는데, 이제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하게 된 거지요. 해외에서는 교육활동을 하고, 국내에서는 시리아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도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헬프시리아’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김해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압둘와합과 친구들은 성향이 매우 달라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게다가 모두 본업이 있어서 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와합이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시리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2015년 이후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기저기에 조금씩 단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몇몇 미디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가 무슬림 국가로 인식되어 있는데다가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리아는 북한과 수교국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인 저는 교회 공동체가 많이 신경 쓰였어요. 머리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인 제가 무슬림을 돕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헬프시리아’ 활동 초기에는 시리아를 돕자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믿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전히 ‘헬프시리아’는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핵심 멤버들도 다들 본업이 있다 보니 주로 와합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행사나 활동이 있을 때 여건이 되는 자원봉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돕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 활동마다 매번 다른 회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압둘와합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머리나 마음의 속도에 있어서 저와 다른 멤버들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2주 후’에 회의 일정을 잡아요. 그런데 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천 명, 이천 명씩 시리아를 탈출하고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다음 회의 일정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까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급했죠.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한국어 실력도 부족했고 한국 문화도 지금보다 잘 모를 때였습니다.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할 때도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금 활동에 대해 10분 정도 회의하고, “이제 모금하러 갑시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멤버들은 ‘왜 모금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알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회의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리아 상황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거나, 가끔씩 단신으로만 처리되어서 시리아를 잊고 사는 사람도, 이제 다 해결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회의만 하고 있을 때인가’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저는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와 아이들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면 모든 상황이 설명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당연히 난민을 돕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국인 멤버들은 시리아 상황, 역사, 전쟁의 배경 등을 다 설명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발생한 9.11도 그렇고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 면이 많은데도 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인지요?

압둘와합 시리아 상황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거나, 가끔씩 단신으로만 처리되어서 시리아를 잊고 사는 사람도, 이제 다 해결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2015년 9월 지중해에서 고무보트에 의지한 채 표류하다 목숨을 잃은 난민들과 어린 아이들 쿠르디의 사진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잠잠하다가, 지중해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빨간 옷을 입은 어린이의 사진이 소개되자 전 세계가 반응하였고 엄청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3개월 이후 관심은 다시 이전처럼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쿠르디와 같은 일이 6,000건이나 더 발생했고, 지난 한 주에만 6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 정부군, 반군, 쿠르드 민병대가 계속 싸우고 있으며 난민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전쟁이 멈춘 몇 주간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다시 전투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피신하는 식의 이주와 이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시리아는 한 나라인 것 같지만, 각국의 대리전 양상이 계속되다 보니 2년



〈시리아 - 압둘 와합의 귀향〉 촬영 장면. 2013년 9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시리아 북쪽 알레포주 외곽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동화책 〈강아지몽〉을 빔프로젝터를 사용해 읽어주었다.

전부터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러시아, 이란, 터키, 미국이 운영하는 지역, 시리아 정부군이 관할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을 넘나들 수조차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0년째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안전하지 않은 나라, 테러가 가장 많은 나라를 꼽으면 시리아가 들어갑니다. 시설들은 파괴되었고, 전쟁 때문에 물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취약한 상태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군이 관할해서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지역조차 전기가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총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그다지 큰 이슈가 못 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터키 국경에만 400만 명의 실랑민들이 있습니다. 난민

캠프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국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난민 캠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캠프 전체를 통째로 격리하고 봉쇄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시리아가 여러 나라로 나뉘까봐 더욱 걱정입니다.

2014년에 시리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시리아에 촬영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고향이 IS 근거지가 되어버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제 고향은 쿠르드 민병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말만 민병대이지 사실 통치 방식은 IS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시리아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방문했지만, 고향이 지척인데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고향을 못 가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러한 시리아 상황을 들 때마다 몸이 얼어붙습니다. 무서움에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세계 평화는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평화는 마음과 몸이 같이 평화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한국 국적을 가진 지금이 더 평화로워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1,300명이 있는데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결혼 이주민, 학생 등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요.

9.11과 시리아 내전은 언뜻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9.11과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압둘와합 9.11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9.11과 시리아 내전은 연관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시리아에게 9.11은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범죄 사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이 9.11을 계기로 전 세계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고, 시리아 독재자나 아랍 독재자들은 9.11을 이용하여 통치수단을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들은 보이지 않는 테러리스트들을 잡아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받는 사람들 다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사회와 세계 시민들은 잘못된 뉴스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테러리스트를 자동으로 연결 짓습니다. 시리아도 그중 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리아와 9.11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와 9.11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사건이지요. 시리아에서 IS가 활동한다고 해서 9.11과 시리아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전문적인 언론이나 독재자들이 이를 일반화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건 참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어’라고 뿌듯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압둘와합 시리아에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평화교육입니다. 수학과 글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과목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기본 가치이자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평화가 간절합니다. 춘천의 경관 좋은 커피숍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평화는 오히려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뜻이나 생각, 마음으로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을 통해 평화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평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추구하고, 생각의 지평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이라고 하면 칼을 들고 낙타를 타는 사람이나 히잡을 쓴 여성만 단편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시리아가 지금은 내전 중이지만 예전에는 매우 평화로운 나라였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강의 중 잠깐 쉬고 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안아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울컥했습니다. “시리아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평화로운 시리아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해 주었을 때도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학교 개교식에서도 아이들은 일상과 미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한국어와 아랍어로 쓰인 기념비를 보면서 한국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읽을 수 있는지, 평화롭고 안전하게 해외에 갈 수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이요. 어른들은 전쟁과 싸움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옆 친구들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과 시리아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따뜻하니까요. 시리아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과 시리아 학교 상황을 비교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라고 해요.”라고 선뜻 이야기합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시리아 이야기와 일상의 평화, 그리고 교육을 이야기할 때 참 뿌듯합니다.

김혜진 작년까지는 2019년에 시리아에 학교를 세운 것이 평화를 위해 했던 가장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하려면 평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올해 들어 뿌듯한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는데, 바로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를 출간한 일입니다. 사실,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NGO활동가도 아니고 인기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줄까? 코로나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슬림 난민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은 그것이 지닌 역량만큼 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니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9.11뿐만 아니라, 테러와 폭력은 사람들을 서로 낯선 존재로 만듭니다. 알고 있던 사람도 낯설게 만드는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친밀해지면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헬프시리아’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책의 저자가 되고 나니 더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난민이나 무슬림을 만나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무슬림을 알려주면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석 달 만에 2쇄를 찍으면서 책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난민을 정치적으로만 봤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 ‘편견과 오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리뷰를 볼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책 출간 후 제자들이 연락해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 2학년 때 제가 담임했던 제자가 장문의 문자를 써 보낸 일이 마음을 가장 울립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인 제자는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수업에서도 예멘 난민들을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책을 읽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책을 사보지 않았을 텐데, 시야를 넓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였어요.

제 책은 논리적인 성향의 글이 아닌데, 와합 이야기, 난민이 된 가족 이야기, 헬프시리아 활동 이야기를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풀어낸 것이 공감과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는 책의 주인공 압둘와합은 무슬림이고, 그의 이야기를 풀어쓴 저는 기독교인인데, 책은 불교 서적 관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헬프시리아’가 펼치고 싶은 활동 방향이나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압둘와합 헬프시리아의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큰 방향은 평화교육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시리아를 알리는 일은 계속하면서, 교육 분야에 주로 사용할 후원금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리아 상황에 맞춰야 하는데, 시리아 상황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고민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학교, 체계적인 인터넷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시리아 학생들이 좀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보도록 뽀로로와 같은 한국 캐릭터를 이용해서 현지 교육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헬프시리아가 시리아에 세운 학교 개교식에서. 학교 앞 기념비에 아랍어와 한국어로 설명 취지가 쓰여 있다.

난민 관련해서나 '헬프시리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평화활동가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김혜진 평화뿐만 아니라 난민 이슈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헬프시리아는 회원 가입도 특별한 절차가 없는 상태인데, 우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멀리 있는 난민을 돕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을 주변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연대로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둘와함 편한 마음만 준비해 오세요. '거기 간들 내가 도움이 되겠나, 나는 아이디어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뭘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실천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배운 뒤 오겠다고 생각지 말고, 서로서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장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모양으로 다 같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수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활동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평화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 같이 손잡아 주면 거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함께 평화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9.11 시대에 살면서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중요한 지혜나 통찰이 있으신가요?

김혜진 9.11로 인해 생긴 반목 혐오는 언제 어디서 표출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혐오가 표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낯설'에서 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 때, 잘 모른다면 멈춰서 생각하는 지혜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멈추면 좋겠습니다. 선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쉽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반복적인 무지와 혐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압둘와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국적, 직함, 출신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어른과 어린이, 교수와 노동자 등의 이분법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차별은 끝이 없습니다. 무슬림이 없었다면 혹은 난민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들끼리 차별했을 것입니다. 대상만 옮겨갔던 것이지요. 포스트 9.11은 끊임없는 차별을 다르게 바라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30분 진행되었으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 나누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처음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후에는 복숭아밭을 방문하여 농부가 건네주는 고추와 덩으로 얹어주는 복숭아를 받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계속 평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문득 <플랜P> 창간호의 키워드 '평화는 사람이다'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 들었다. 포스트 9.11을 이야기하며, 또 압둘와함과 김혜진이라는 평화를 얻었다. P

주변을 돌아보면 평화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모여 같이 손잡아 주면 거기서 일이 시작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함께 평화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단초

글 류복희

개척자들(The Frontiers)의 멤버로서, 전쟁은 모든 악이 소환되는
무시무시한 저주라고 생각하며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강경에 살고 있다.

최근 들려오는 아프가니스탄의 소식들은,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를 연상하게 한다.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길을 떠나거나, 카불로 몰려와 거대한 피난민촌을 형성했던 모습들이 그때와 비슷하다. 2002년 2월, 나는 그 피난민촌을 무작정 찾아갔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냈던 8개월의 기억들이 요즘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미군의 철수가 시작된 이래 탈레반은 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요 도시들에 차례로 탈레반의 깃발이 꽂히고, 급기야 수도 카불이 함락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원래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군벌들이 사병을 두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곳들이 많았다. 그런데 군벌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탈레반 쪽으로 합류하면서 어떤 도시들은 정부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서는 일들이 벌어졌다. 1990년대 아프간 내전 때 최대 군벌이었던 아마드 샤 마수드가 창설한 '자이마트 이 이슬라미'도 탈레반에 합류했다. 이 군벌은 예전엔 북부동맹을 주축으로 2001년 미군의 아프간 침공 때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길잡이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탈레반을 도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친미 정권이라 몰아붙이며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군벌, 탈레반, 친미 정권 중 어떤 세력이 장악하던 지역주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탈레반은 종교적인 근본주의를 모든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한다.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전면 금지시킨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로이 다닐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의복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도 쉽게 처벌받는다.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부루카(bruka: 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의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 밑으로 발목이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을 공개 태형에 처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방송되곤 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한편으로는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는 의미에서 해방을 뜻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레반 세력은 20년 동안 잔존하며 게릴라전을 벌였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다시 탈레반의 손아귀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상황들은 나를 초조하고 암담하고 슬픈 우울감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19년 전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따뜻한 어른들과 해맑았던 아이들, 수줍은 미소로 반겨주었던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희망의 단초를 붙든다.



Kabul, Afghanistan - 아프가니스탄 카불 거리를 지나는 엄마와 아이

2002년 쿤두즈에 있는 작은 읍 '이맘소입'에 도착하니, 비포장도로 위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부루카로 온몸을 가린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루카를 덮어쓰고 있는 그들이 내 옆을 지날 때, 왠지 그들이 인격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낯설었던 첫 느낌은 얼기설기 비닐로 된 천막 속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맨발의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금세 사라졌다. 그 아이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와있는지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2월이었지만

날은 추웠다. 추위에 코가 빨개지고 손이 오그라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구호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구호품을 나눠주는 와중에 나는 내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을 만났다.

한 마을의 촌장인 그는 빵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서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굶주리고 있으니 마을에 와서 빵을 나눠주기를 부탁했다. 먼 길을 찾아온 그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다음날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 마을은 강을 건너가야 했다. 그가 구해온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수심이 너무 낮아서 배를 부두에 가까이 댈 수가 없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라면 배에서 내려 무릎을 적시며 육지까지 걸어갔겠지만, 우리는 어쩌해야 할지 몰라 배 위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었다. 그때 갑자기 촌장이 바지를 걷고서 차가운 강으로 뛰어내려 배를 끌기 시작했다. 내가 알기로 아프가니스탄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한 마을의 리더가 스스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머슴처럼 우리가 탄 배를 물까지 끌어간 것이다. 그것은 그 추운 날에도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고된 일이었다. 그의 모습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단박에 걷어냈다. 타인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하나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고귀한 도덕의식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마을에 도착하니 여성들이 전신을 덮는 부르카 대신 머리에 쓰는 히잡만 두르고 있었다. 종교적인 관습이 덜 미치는 그곳이 좀 더 자유로워 보였다. 아마도 그들의 가난한 삶이 종교적인 예식을 차릴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가치에 그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돕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비록 소박한 삶이지만 그들이 베풀어준 넘치는 환대와 배려는 씻을 물도, 화장실도 없는 그곳, 춥고 배고프고 불편했던 그곳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들과 함께했던 짧았던 피난민촌 생활은 나로 하여금 애정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오기 전, 아쉬운 마음에 그 마을을 한 번 더 찾아갔다. 멀리 흠집 모퉁이 너머로 몸을 가린 채, 오래도록 나의 가는 길을 지켜봐주던 그 눈길이 참 따뜻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엉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근 뉴스를 통해 탈레반에 점령되어 탈레반 깃발이 꽂힌 도시들을 보니, 20년 전에 만났던 그들이 무사한지 걱정된다. 나의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으니 그분들도 많이 늙으셨을 텐데, 그때 만난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을 텐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막막한 세월들을 어찌 살아내고 계셨을까... 그들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가 더 힘들지, 아니면 억압된 긴장

속에 살아야 할 일상이 더 힘들지 가능해본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이 여전히 따뜻한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배를 끌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의 촌장님이, 수줍은 미소로 옆자리를 내주던 아프간의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불의를 말하다 생명을 잃은 미나깁갈 같은 여성기자, 불편한 진실을 밝혀내는 여성 대법관들이 그곳에 있다. 사회가 아무리 엄혹하고 거칠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됨'의 싹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그 빛나는 싹은 어디에서든 다시 자라고, 꽃을 피울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며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준다. 혹 그것이 당장에는 어두운 땅 속에서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그 빛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는 법이다.

미국이 9.11 이후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더 많은 테러를 양산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폭력으로는 폭력을 멈출 수 없다. 느리고 더디고 답답해 보이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 비록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폭력의 재생산만은 막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전쟁 속에서 죽어간 무고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쟁의 실체를 드러내는 용기 있는 저항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저항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평화교육들이 점점 더 다양한 영역과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평화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생태계는 마침내 폭력이 설 자리를 앗아갈 것이다.▶

미국이 9.11 이후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더 많은 테러를 양산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폭력으로는 폭력을 멈출 수 없다. 느리고 더디고 답답해 보이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 비록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폭력의 재생산만은 막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문제였다

최재훈 국제연대운동 단체 '경계를넘어' 활동가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힘든 곳.

이는 지난 8월 탈레반이 진군을 시작한 지 불과 2주일 남짓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공항과 그 인근에서는 급히 탈출하려는 외국인들과 아프간 시민들, 그리고 미군과 영국군, 탈레반 반군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벌어졌을 때, 저의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른 말입니다. 과거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가니스탄을 가리켜 했던 낯두리인지 충고인지 모를 저 표현은 2,4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 다시금 예언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공교롭게도 19세기에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대영제국, 20세기 사회주의 제국 건설을 꿈꾸던 소련, 21세기에 역대 최강의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평하는 미국이 차례로 같은 공간에서 선대 제국의 가르침을 무시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된 셈이지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원죄

이번 아프간 탈레반의 권력 재탈환과 뒤이은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프간 국민들의 공포와 국제 사회의 불안을 바라보면서 가장 곤혹스러울 인물 중 하나는 아마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합니다(물론 아프간 국민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들을 9.11 20주년 기념일 이전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그의 4월 16일 발표가 너무 '성급했고, 무책임했다'는 나라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만 바라보자면, 한편으로 그러한 비난들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날 미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겼던, 이른바 '사이공 모멘트'라 불리는 1975년 4월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서의 헬기 대탈출을 두고서는 누구도 전쟁을 시작한 대통령이 아닌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제럴드 포드를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프간 철군은 전

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작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탈레반 대표단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올해 5월이던 철군 시한을 바이든 행정부는 4개월 더 늦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문가인 미국 미시건 대학의 후안 콜 Juan Cole 교수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과 점령을 '다단계 폰지 사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돌려막기식으로 후임 정부에게 떠넘겨왔을 뿐, 언젠가 누군가는 철군이라는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더 자세히 따지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 억울해질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2001년 9월 14일 미 상원의원으로서 아프간 전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더 나아가 미 상원 외교 위원장이던 2002년에는 당시 상원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동료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편에 서서 전쟁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흑역사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 덕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 전선을 이라크로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프간 전쟁이 서서히 '잊힌 전쟁(forgotten war)'이 되어가는 사이에 그간 거의 궤멸 수준까지 내몰렸던 탈레반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오늘날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무의미하다지만, 그래도 만약 그가 그때 전쟁이 아닌 평화를 택했다라면 지금쯤 탈레반은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의 산악 지대 어딘가에서 당나귀로 아편 상자나 실어 나르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당신은 현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자, 그것도 핵심적인 책임자일 뿐이니 전혀 억울해질 필요는 없다고 누가 대신 위로를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몽의 서막은 철군이 아니라 침공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앞서 언급한 후안 콜 교수의 말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과 난맥상은 사실 미군이 1년 뒤, 혹은 5년 뒤, 심지어 10년 뒤에 철군한다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과 그 연합국들(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됩니다.)의 아프간 침공과 점령은 그 끝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년 전 아프간 침공을 반대하셨던 분들 가운데 행여나 "침공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왔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판단은 옳았고, 오늘 그것이 비극적으로 입증된 것일 뿐입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가리켜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인식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프간 국민들은 미국과 그 연합국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폭격해 탈레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외국 군대가 마음대로 쳐들어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줬다고 스스로 선언하고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넘겨줬을 뿐이지요. 이번에 3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이 7만 명 남짓에 불과한 탈레반 전투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뿔뿔이 흩어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전쟁에서 외세와 부패한 엘리트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번에 언론들이 근본 원인은 생각하거나 축소한 채 아프간 군대와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들은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거봐, 저들은 원래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꾸러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라는 그릇된 고정 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활동가이자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Malalai Joya)

념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지요.

언론에서 또 하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아프간 여성들의 미래에 관한 우려 역시도 본질을 비껴가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와 관련해 2010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포함됐던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활동가이자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Malalai Joya)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과 시민사회에는 3개의 적이 있다. 탈레반, 정부의 탈을 쓴 군벌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점령이 바로 그것들로, 이제 (미군의 철수했으니) 우리에게 두 개의 적이 남았다.”라고 말이지요. 물론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대중음악을 듣고,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진일보한 측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그런 나아진 삶은 카불과 칸다하르 같은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에게 주로 허락된 것일 뿐,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시골 여성들에게는 사실상 딴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곳 외딴 시골 지역들은 그 전부터도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은 채 대부분 탈레반이나 무자헤딘(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출신 군벌들이 마치 정부인 양 군림해 왔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권리를 가혹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맨 처음 도입한 이들은 1996년에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아니라 1992년에 인민민주당 정권을 무력으로 몰아낸 무자헤딘 군벌들이었습니다. 반면 1987년에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가부장제에 맞서 싸울 여성의 권리 인정과 같이 아프간 역사상 여성 인권에 있어 가장 진일보한 헌법을 채택

하고, 1992년에 제안한 국민 화해 정책에서도 여성 인권을 최우선 의제로 내세웠던 이들은 그들이 무너뜨린 인민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친미 국가들은 소련과 친했던 인민민주당 정권을 몰아낼 수 있도록 무자헤딘 군벌들에게 돈과 무기, 정보, 심지어 이슬람 극단주의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단지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프간에 친미 정부를 세우겠다는 계산 하나로 말이지요. 그 뒤 1992년에 차지한 정치권력의 전리품을 놓고 친미 군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그들끼리 벌이는 내전의 잔혹함에 치를 떨던 아프간 국민들의 심리를 잘 파고든 탈레반이 1996년에 정권을 잡고, 과거 대소련 항쟁에 참여했다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국과 사우디 왕조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이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된 과정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하고, 친미 군벌들 가운데 일부가 정부와 지배 엘리트로 변신해 나라를 통치하던 지난 20년 동안에도 아프간의 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혹독한 가부장제와 차별에 시달려왔었다는 이야기지요.

강제로 이식된 민주주의의 종말

그러한 맥락을 거두절미한 채 마치 여성들을 비롯한 아프간 국민들이 지난 20년간 자유와 평화와 인권의 신세계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명백한 자기기만이자 위선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그 연합국들의 아프간 침공과 점령은 애초 시작부터가 이렇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9.11 직후, 미국의 보복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의 다양한 세력들은 기꺼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의향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력에 나라가 초토화되기 보다는 오사마 빈 라덴을 국제사회에 인도해 전범으로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탈레반 정권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실현보다는 9.11 테러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해소가 우선이었던 미국 정부는 그러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아프간 사회를 “석기 시대로 되돌릴 만큼”의 대대적인 군사 공격을 택했습니다. 곧이어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고, 미국에게는 다시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나라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되돌려줄 것이냐,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활동가이자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Malalai Joya)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과 시민사회에는 3개의 적이 있다.

탈레반, 정부의 탈을 쓴 군벌들, 그리고 미국의 군사 점령이 바로 그것들로, 이제 (미군의 철수했으니) 우리에게 두 개의 적이 남았다.”라고 말이지요

아니면 미국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아프간을 '재건'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선택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당시에 향후 아프간 정부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혔던 압둘 하크Abdul Haq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1년 10월경 그는 어느 서구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아프간의 모든 세력들을 포용해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는 서로 다른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틈을 들인 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미국은 이미 스스로 마음을 정한 듯합니다. 내가 어떠한 조언을 내놔도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실제 미국은 잘마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라는 아프간계 미국인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 사실상 총독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아프간 국민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하미드 카르자이라는, 미국계 다국적 석유회사 유노칼Unocal의 고문을 지내며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헌법과 정부 구성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미국식

군대를 만들어 훈련시키고, 미국식 문화를 아프가니스탄에 주입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했지요.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 정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정부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고,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멀어지니 정부와 엘리트들은 각자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만 집중하게 되고, 지배 세력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니 ‘차라리 저들보다는 탈레반이 더 낫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탈레반 주위로 몰려오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안은 평화를 잠식한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라 안팎에서 많은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전투에만 능한 7만 명의 전사들만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아프간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지난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을 꾀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더군요.

그러나 누군가 제게 그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탈레반이 과거와는 달라진 ‘탈레반 2.0’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과 그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7세기 이슬람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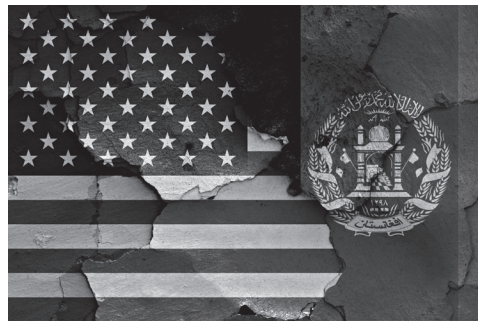
수밖에 없고(그렇다고 오늘날의 이슬람 사회 전체가 낙후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난 1,400년간 이슬람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뤄왔고, 대다수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덧붙여 강조합니다), 아프간 상황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만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세계에서는 관련된 행위자들, 즉 미국과 서구 세계,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터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각자의 셈법과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전쟁과 분쟁, 그로 인한 폭력이 여기저기서 재발하고 확산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지역의 민중들에게 전가될것지요.

실제로 그런 조짐은 벌써부터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난 폭탄 테러로 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곧바로 드론을 이용한 보복 공격에 나서 테러리스트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해 ‘사냥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국이 살해한 혹은 앞으로 살해할 이들이 진짜 테러리스트인지, 무고한 민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듯 이번엔 미국이 끝낸 건 아프간 점령이지,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와의 전쟁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이미 들어간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에다 더 많은 돈이 보잉,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들이 찍어내는 드론과 첨단무기들로 소비되는 미래,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저항하고 막아야 할 미래입니다. P

이번엔 미국이 끝낸 건 아프간 점령이지,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와의 전쟁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이미 들어간 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비용에다 더 많은 돈이 보잉, 레이시온, 록히드마틴 같은 군수업체들이 찍어내는 드론과 첨단무기들로 소비되는 미래,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저항하고 막아야 할 미래입니다



바람만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몸에 깊이 새겨 있을까?

9.11을 목도하며 얻은 폭력을 끝내는 7가지 지혜

글 캐서린 맨스필드 Katie Mansfield

미국 이스턴메노나이트 대학교 정의와 평화세우기 센터 산하
'트라우마 인지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전략'

(STAR, Strategies for Trauma Awareness and Resilience) 리더 트레이너



그날 나는 타다 만 종이들이 1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는 것을 건물 18층에서 올려다 보고 있었다. 쌍둥이빌딩(세계무역센터)에서 불덩이가 터져 나왔다. 옆을 지나가던 동료가 “이건 사고가 아니야. 우리도 여서 대비해야겠어.”라고 말했다. 우리는 꽤 많은 계단을 내려와서 멀리 대피했다. 고막을 때리는 소리가 도시를 뒤흔들었다. 쌍둥이빌딩 하나가 폭삭 무너졌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먼지구름뿐이었다. 그날 이후 두 달 동안, 할머니는 거의 매일 장례식에 다녀오셨다.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친구들이었다.

그날이 있기 전에 나는 두려움이나 폭력, 죽음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혹은 압축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돌아보면 나는 늘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운이 좋았다.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날까 염려하면서 세계평화를 바랐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순진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해 동안, 개인적으로 두 가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첫째, 일주일 이상 되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둘째, 상실감에 압도되었고 희망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직을 생각했지만, 갑자기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2003년에서야 삶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었고, 2004년이 되자 회사를 떠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운 좋게도 그 후 15년 동안 인도, 미국, 필리핀, 케냐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평화교육을 위해 일하는 사랑스럽고 용감한 멘토들과 만나면서 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땅에 얽힌 이슈(예를 들면, 토지 갈취, 식민 유산, 선주민의 강제 실항)를 드러내고, 카스트 차별이나 인종차별 구조를 해체하고, 사회변화와 대화,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폭력이 발생 중 혹은 그 이후에 관계를 만들 공간을 창조하고 있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고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들 내면의 평화와 회복탄력성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몇 년을, 그날 일어난 사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친구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폭삭 주저앉은 이 거대한 쌍둥이 건물 안에 있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테러와의 전쟁’ 시대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애도했다. 아주 오래 전의 밥 딜런 노래 처럼,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노래는 이렇게 답한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겠지.’

‘어떻게 폭력을 끝낼 것인가?’ 그 전에는 이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이 질문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답들을 지난 20년 동안 다양하게 접했다. 오늘 나는, 9.11과 이후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위, 아래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출구는 어디인가?

이것은 폭력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곳곳에 가득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폭력의 구조는 많은 사람을 음식, 안전, 피난처, 의료,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세계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고,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는 ‘희망 없음’에 압도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불태우고, 억압하고, 처벌하고, 존엄성을 부인하고 가로막는 악한 패턴을 벗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비폭력 운동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왔다.(에리카 체노웨스를 참고하라. <<비폭력 시민운동은 왜 성공을 거두나?>> 에리카 체노웨스, 마리아 스티븐/강미경 옮김/2019/두레) 인간이 음식, 물, 공기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을 위한 중요 원천인 지구를 돌보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 안전과 돌봄을 주고받아라.

대규모 폭력 혹은 전염병과 같은 압도적인 위협을 마주했을 때,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안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전 지구적 환경 위기나 보건 위기와 같이) 신체적 안전 보장에 의문이 생기거나 엄청난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연민으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서적 안전을 찾을 수 있다. 정체성, 경제 혹은 다른 지위에 얽힌 위협을 줄이고, 돌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해를 막는 시도다.

3. 뒤를 돌아보며: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폭력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폭력이 발생한 후에, 폭력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피해든 국가의 피해든, 피해는 이전의 경험에 대한 반응이자 폭력 순환의 일부로 나타나곤 한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들추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때때로 시간과 거리두기가 필요한 일이다. 비록 진실을 말하는 일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래의 폭력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슬퍼하고 애도하라.

슬픔과 애도는 공적이거나 사적일 수 있다. 분명한 문화적인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상실을 제대로 곱씹기 위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슬픔과 애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상실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5.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충격과 그에 따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헤아려라. 치유는 단선적이지 않고, 엄청난 돌봄을 필요로 한다.

엄청난 상실로 압도된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 폭력으로 인한 충격과 욕구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은 평화의 기반이 된다. 반면, 이러한 욕구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많은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

6. 친절에 주목하고, 돌봄을 주고받으라.

엄청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돕고자 나선다. 많은 사람이 직접적인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위기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친절과, 폭력을 거절하기로 한 사례에 주목하자. 평화실천가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돌봄을 독려하고 공동체 돌봄의 공간을 창출하고 장려할 것인가?

7.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행동하라.(2005년 멜 마드로나의 책, 《코요테의 지혜: 치유에 미치는 이야기의 힘》 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폭력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몇 년 전 뉴욕에 있는 9.11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나는 슬픔에 사무쳤고 좌절했다. 나의 슬픔과 좌절감의 한 부분은 목숨을 잃은 친구들을 기억하는 여정에서 온 슬픔이었다. 내가 느낀 좌절감과 절망의 원인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에 있었다. 나에게 9.11기념관은 '적'을 상대로 한 더 많은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특정한 방식의 폭력 행동을 고착화시키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미국이나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인간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며, 인간의 존엄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

신체적 안전 보장에 의문이 생기거나
엄청난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연민으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서적 안전을 찾을 수 있다



'다른 곳 말고, 위로 보아라 정의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힘 센 목소리, 우리의 시선을 저 위로 고정시키는 힘 센 줄이 있다.

그 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지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위로, 위로 묶어맨다.

하지만 나, 이제는 내게 다가오는 생명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보고 싶다.

그 줄을 끊자!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온
생명의 색깔로 끊어진 줄을 색칠하자.
줄이여, 내 기억이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르자.

글·그림 에밀리 (Emily Wang, 평화활동가)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 치유로 향하는 여정, 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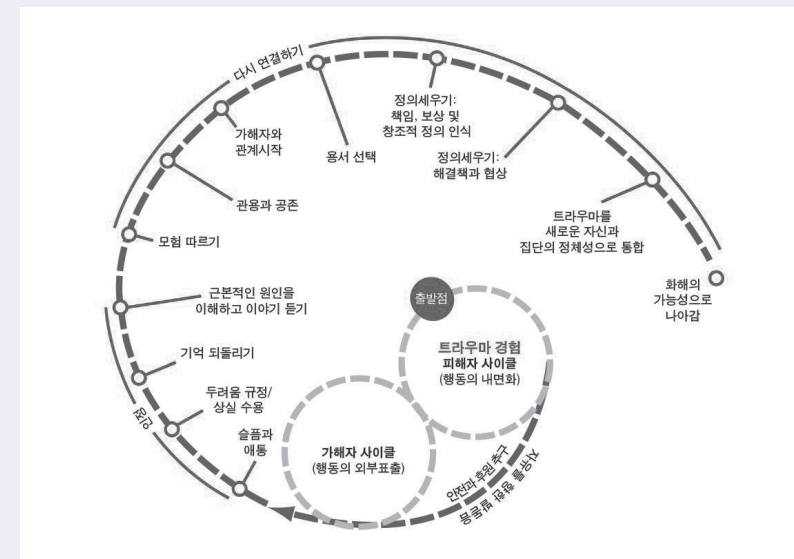
글 안은경 대안학교 교사, 회복적 정의 실천가,
STAR Level 1, 2 수료

‘STAR’ 프로그램

사회공동체가 겪는 참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기에 우리는 이를 내상, 즉 ‘트라우마’라 부른다. 트라우마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세계관과 정체성을 산산조각 낸다. 혼란과 아픔, 절망 속에서 ‘나는/우리는 누구인가’와 ‘나는/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라는 정체성과 공동체의 방향성을 뒤흔든다. 9.11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9.11은 비단 미국인과 미국 사회만 충격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을 변화시켰다.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부시 정부는 테러에 전쟁으로 대응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대학원 과정 초반, 동기들이 다 함께 모이는 전공필수 시간에 ‘9.11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타임라인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9.11 당시 미국에 있었던 사람과 미국에 없었던 사람,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후, 전체가 모여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활동 후, 1990년도 중반에 태어난 두 동기가 부둥켜안고 울었다. 한 명은 미국인인 A였고, 한 명은 레바논인인 S였다. A는 S를 안고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했고, 그 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부시 정부는 테러를 전쟁으로 대응했지만, 여러 시민과 종교 단체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트라우마 이해와 회복탄력성 프로그램(Strategies for Trauma Awareness and Resilience, 이하 STAR)>은 그중 하나다. 조직과 리더가 트라우마를 이해하여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고 회복력을 키워,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의 ‘웰빙’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어의 앞 글자를 따서 프로그램을 ‘STAR’로 부르며, 트라우마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별이 주는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 ‘STAR’는 신경생물학, 트라우마학, 안전, 회복적 정의, 갈등 전환, 평화세우기 및 믿음과 영성 등 이제까지 분리되어 실행한 연구 및 실천 분야의 개념들을 통합시켜 ‘트라우마 치유’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STAR’는 크게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 원인과 유형,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 트라우마의 악순환, 악순환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여정으로 구성된다.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 여정, 캐롤린 요더(《트라우마 이해와 치유》, 2014)¹

1.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도표화한 것이다. 이 표는 달팽이 모델이라고 불린다. 그림이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트라우마 치유와 여정이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임을 암시한다.

‘STAR’와 트라우마 이해 환경(Trauma-Informed Environment)

‘STAR’는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Eastern Mennonite University, 이하 EMU)²에서 탄생했고, STAR 연구소도 이 학교에 있다. 대학에서 탄생한 ‘STAR’ 프로그램은 학교가 트라우마 이해 교육환경(Trauma-informed Learning Environment)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EMU의 정의와 평화 센터(Center for Justice and Peacebuilding, 이하 CJP)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STAR’를 수업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STAR’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는 갈등전환과 회복적 정의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도구와 틀이 되었다. 내가 입학했던 2017년 당시 대학원 과정에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국제학생(그러나 2018년 이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그 비율은 1~2년 새 급감했다.)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교육환경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강화해 주었다. 이 외에도 학교는 트라우마 생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안전한 트라우마 이해 교육환경을 만들었다.

트라우마 이해 교육환경은 신체와 정서적 안전을 우선시한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활동가가 참여하는 여름 평화 프로그램(Summer Peacebuilding Institute, 이하 SPI) 때 있었던 일이다. ‘STAR’ 1단계 수업 첫 날이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온 M은 오전에 있던 ‘공간 열기’ 시간에 유대계 미국인의 웃음이 기분 나빠 그 이후의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진행자 한 분(‘STAR’는 공동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자들을 더 잘 돌보고 배움 공동체의 역동을 잘 살피기 위함이다.)은 수업에 참여하는 대신, 교실 밖에서 참여자 M을 돌보았다. 그해에는 SPI ‘STAR’ 1단계의 참여자가 많아 두 개의 강좌로 나뉘어 열렸는데, M은 자신의 웰빙을 위해 다른 반 수업으로 옮겼고, 5일 동안의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STAR’ 1단계와 2단계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 참여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진행자는 이것이 트라우마의 이해와 회복탄력성 수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모든 활동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매 시간 상기시켰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신체활동과 창조성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을 접목해 활동을 풀어갔다. 교수들

은 대학원 수업 중,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틀기 전에 트라우마를 재연할 수 있는 소재나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알려줬다. 교수들의 배려로 학생들은 영상을 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한다면 동영상을 보지 않고 잠시 교실 밖에 머물 수 있었다.

비록 트라우마 재현(trigger)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갈등이나 피해를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렵다. 원치 않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피해와 상처받은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 이해 교육환경 덕분이었다. 일례로 몸과 예술을 통한 회복탄력성 전공 수업에서 인종차별을 다룬 적이 있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 역사적, 구조적, 문화적 트라우마를 낳았기에, 이 이슈를 다룰 때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 중 백인 교수가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몸과 예술로 표현해 보라고 초대했을 때, 흑인 동기 T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교수의 진정어린 사과와 그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 앞으로 트라우마에 더 민감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학과장의 약속으로 회복의 과정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나는 이 일에서 회복의 열쇠는 트라우마가 유발된 상황에서 자신의 ‘상처받음’을 표현하고 피해를 드러내는 학생의 용기와, 학생의 경험을 온전히 수용한 학습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나는 트라우마에 관한 이해와 교육의 필요성을 알았고, 한국에서 ‘트라우마의 이해와 회복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평화활동가와 ‘회복적 실천’ 교사들을 만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가르치기도 한다.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과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본다. 존 폴 리더락은 ‘폭력 양상의 굴레’가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 가는 상상력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과거 폭력 양상의 굴레를 직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폭력 양상의 굴레를 직면하며, 폭력의 근본 원인을 알고, 폭력으로 인한 왜곡된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시 정립된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써나가는 힘을 강조한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회·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그 굴레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트라우마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안전한 ‘너’와 ‘공동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트라우마 이해 환경과 문화가 필요하다.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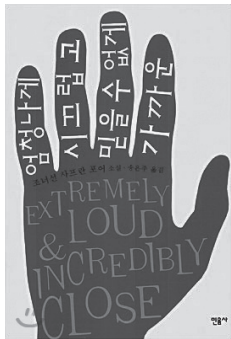
2. EMU는 1908년 메노나이트들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리스버그에 세운 학교이다.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는 남부연방에 속한 주였고, 해리스버그에 사는 메노나이트들은 남북전쟁에 불참하며 폭력에 저항했다. 남부연방군은 그들의 집을 불태웠고, 집을 잃은 메노나이트들은 도시 전체가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 ‘정의와 평화 중심’ 대학인 EMU를 세웠다.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가 매 순간 공존하는

글 장인희

《플랜P》편집/기획위원. 제주에 살고 있다. 비건을 지향하며, 읽고 걸으며 세상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9.11을 기억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그 중 하나이지요. 9.11 20주기를 맞아 매 순간 공존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책과 영화 각 두 편을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조너선 사프란 포어 지음/송은주 옮김/
2006년/민음사

다소 길고 복잡한 제목의 이 소설은 9.11로 아버지를 잃은 아홉 살 소년 오스카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오스카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 결국 오스카는 아버지의 사체를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른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관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오스카를 견딜 수 없게 한다. 오스카는 유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꽃병 속 열쇠를 아버지가 남긴 단서라고 굳게 믿는다.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기 위해 뉴욕 시내를 뒤지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오스카가 탐험을 하며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삶과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스토리를 접목시켜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오스카의 이 특별한 순례에는 아름다운 비밀과 위로가 가득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보듬으며 텅 빈 관을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채워 나간다.

이 소설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더 크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야기는 9.11에서 발화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삶을 마감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마음이 되고, 미처 작별인사를 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고통과 상실을 향해 손을 내민다.

작가는 타이포그래피를 적극 활용하여 텍스트로 전할 수 있는 의미구조의 다양성을 실험한다. 활자는 겹쳐지다가 뺄뻣해지고, 빨간 줄이 가득하다가 거의 검은색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하나의 문장만이 놓여 있기도 한다. 이미지를 담은 많은 사진들은 이야기와 연결된다. 이러한 작가의 시도는 마지막에 절정을 이룬다. 책을 덮으며 독자는 새로운 독서를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감동의 순간은 이 슬프고도 눈부신 이야기를 자주 들여다보게 한다.



《권력과 테러》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지음/
홍한별 옮김/2003년/양철북

《권력과 테러》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존 준커먼이 9.11 직후에 노암 촘스키와 나눈 인터뷰와 강연을 묶은 책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교수, 정치평론가, 사회운동가, 미국의 양심, 침묵하지 않는 지성 등 수많은 수식어를 지닌 촘스키는 꾸준히 권력자들의

거짓을 고발하고 위선을 폭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92세인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의 비판적 목소리는 냉철한 동시에 따뜻하고 낙관적이기까지 하다.

이 책은 테러에 대한 흔한 편견을 깨부수며 권력과 테러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촘스키는 9.11이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약소국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며, 희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특정 종교집단에게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를 느끼게 된 결과를 꼬집는다. 강대국의 이름으로 미국이 행하는 폭력적인 만행들이 정당화되었던 모순을 지적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과 테러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는 미국이 '평화 조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번지르르한 명목으로 오히려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동뿐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친미 폭두각시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쿠데타의 배후에는 늘 미국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촘스키는 권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며 편파적인 보도로 진실에 침묵하는 언론의 문제도 언급한다.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청중의 질문을 촘스키는 단호히 부정한다. 그는 미국이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평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노라고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다큐멘터리는 〈Noam chomsky in our times〉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 남자가 있다. 기소도 재판도 없이 14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된 남자.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 있는 모



[모리타니안] 감독: 케빈 맥도널드 / 2020년 / 미국

리타니에서 태어난 남자. 독일 유학 후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모하메두 울드 슬라히. 9.11 테러 두 달 뒤인 2001년 11월, 이 남자는 빈 라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되어 차갑고 작은 방 안에 갇힌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쿠바에 있는 미군기지 내에 지은 시설이다. 이곳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들까지 감금하여 끔찍한 고문을 행한 장소다. 영화 [모리타니안]은 실존 인물인 슬라히의 증언록인 《관타나모 다이어리(Guantanamo Diary)》(2015)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슬라히의 첫 재판에서 무료 변호를 맡게 된 낸시 홀랜드와 9.11로 친구를 잃어버린 미군 검찰관 스투어트 카우치가 법정 싸움을 준비하면서 은폐되어 있던 참혹한 국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장르는 법정 영화이지만 뻔한 클리셰로 진행되지 않고 사회 고발물이 지닌 중압감도 느낄 수 없다. 억울한 슬라히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는다. 균형을 유지하며 스틸러물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관객을 몰입시킨다. 과거와 현재의 장면은 각각 다른 화면 비율로 연출된다. 낸시와 카우치가 관타나모의 진실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는 두 화면이 겹쳐져서 그들의 충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작은 축구장에서 241번과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는 주변을 매우 높이 설정해 슬라히가 바라보는 세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한다. 인상적인 연출

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더해져 영화가 완성된다. 법정 장면에서 “아랍어에서 ‘자유’와 ‘용서’는 한 단어입니다.”라고 밝히는 슬라히의 증언이 압권이다. 영화는 우리에게 정의와 가치 그리고 인간과 원칙에 대해 묵직한 문제의식을 던진다. 엔딩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과의 싱크로율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데, 밥 딜런의 ‘The man in me’를 부르는 슬라히의 수줍은 미소는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사마에게] 감독: 와드알카팀, 에드워드와츠 / 2019/영국

차라리 영화였으면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시리아 알레포, 그 내전의 중심에서 5년 동안 꾸준히 기록한 영상을 담은 영화 [사마에게]는 직접적인 9.11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쟁과 테러의 현실을 내부인의 시선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와드는 알레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간절한 몸짓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졸업 후 현장 의료팀으로 일하고 있는 함자도, 함께 활동하는 다른 친구들도 그녀의 카메라에 담긴다. 영상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 동료였던 와드와 함자는 결혼을 하고 전장에서 자신들의 아기 ‘사마’를 출산한다. ‘사마’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공습이 없는 맑은 하늘을 꿈꾸는 부부의 희망을 담았다. ‘사마’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영화는 와드가 사마에게 쓰는 편지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관객은 외부자의 시선에서 관찰하기 시작하지만 영화의 끝에는 내부자의 마음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황폐해지는 알레포의 모습과 예고 없이 터지는 폭탄 소리. 폭격 후 겨우 살아나 가족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사람들과 무수한 시체들. 이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된다. 자꾸 숨이 막히고, 눈물 대신 피를 흘리면서도 와드는 곳곳이 카메라를 든다. 거기에 기적 같은 일상이 있다. 망가진 버스를 예쁘게 색칠하는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 정원을 가꾸고, 농담을 하고, 눈싸움을 하는 즐거움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더 끈끈해진 공동체가 있다. 이 기록의 위대한 지점은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가 매 순간 공존하는 현실을 일상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 프레임 안에 삶과 죽음이 함께 담겨 있고 전쟁 속에 평화의 순간이 있다. 뉴스나 보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공존을 예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시리아나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수치로 보도되는 사망자들이 숫자로만 다가온다면, 전쟁 영화는 화려한 특수 효과와 잔인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를 간절하게 권하고 싶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마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P

사랑하는 나의 딸 사마야.

‘사마’는 하늘이란 뜻이야. 우리가 사랑하고 원하는 하늘. 공군도 공습도 없는 깨끗한 하늘. 태양과 구름이 떠 있고 새가 지저귀는 하늘.

포스트 9.11 을 기획하며

평화를 키워드로 저널을 만들겠다고 나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People/ 멈춤Pause/ 길Path/전쟁포로POW에 이어 이번에는 'Post 9.11'입니다. 읽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플랜P 기획/편집위원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덕에 '오늘도 평화'를 매일 외치며 삽니다. 잡지를 읽고 계신 이 순간에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 김복기

2011년 9월 11일. 어쩌면 누군가에겐 그저 20년 '전'의 일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20년 '동안'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플랜P》는 지속적인 폭력의 문화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자각하는 계기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 김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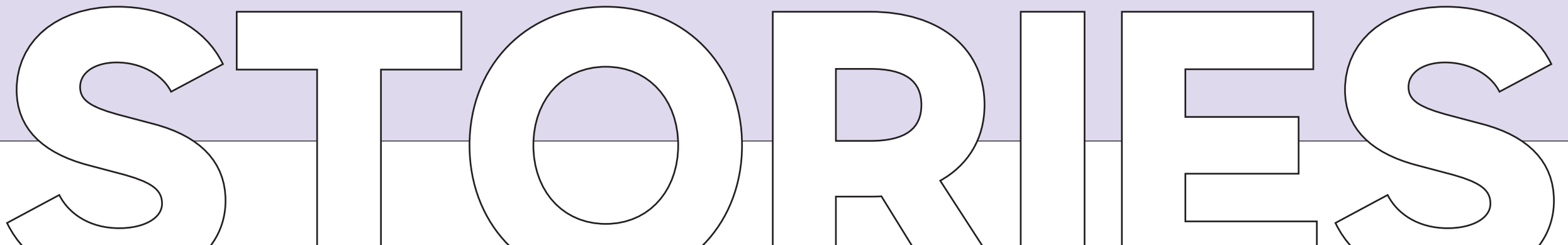
우리는 해방의 날로 기억하는 그 날, 8월 15일에 카불 공항 활주로를 달리던 사람들의 얼굴을 잊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도, 2,356조원이라는 액수도, 수십만 명이라는 희생자의 숫자도 평화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플랜P》가 함께 애도하며 평화를 계획하며 새로운 상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 김성한

지난 1년 동안 시의적인 다양한 주제들로 독자들과 만나왔습니다. 《플랜P》다운, 《플랜P》만의, 《플랜P》라서 가능한 날 것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9.11 20주년을 기억하며 준비한 'Post 9.11'라는 주제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아프간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많은 질문과 성찰을 던져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을도 《플랜P》와 함께 조금 더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삶이, 그리고 이 땅의 평화가...
—— 김유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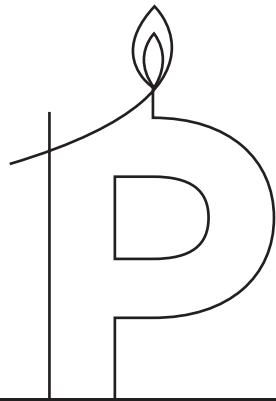
《플랜P》에 합류하고 처음 만나는 주제가 9.11이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9.11을 피상적인 정보로 접했던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며 여러 자료와 책도 읽고 포럼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니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전보다 더 눈이 가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플랜P》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며 평화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장인희

기획 회의 때 'Post 9.11'로 키워드를 잡으면서,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움직여지는 거시적, 미시적 변화들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왜 그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는지, 아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이들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평화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며 일구어 왔는지, 평화의 시각으로 9.11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이번 《플랜P》의 키워드를 통해 이슬람교를 잘 알지 못하면서 뉴스와 미디어에서 주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슬람에 대한 편견들을 키워가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폭력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거나 휩쓸려가지 않도록 비판적 성찰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플랜P》가 내 안에 자리잡고 있던 편견에 질문을 던져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 박숙영



2020년 6월에 시작한
 평화저널 《플랜P》가 창간 1주년이 되었습니다.
 《플랜P》의 1년을 함께 걸어 온 독자님들의
 1주년 축하 메시지로 다섯 번째 《플랜P》에
 힘을 불어 넣어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속에 오아시스가
 있어서라고 하더라구요. 사막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평화저널 《플랜P》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제작자 모든 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김경신

평화저널 《플랜P》 창간 1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매 호마다
 평화와 관련되어 선택된 주제어와 내용으로
 평화감수성이 쑉!쑉! 자라는 것이 느껴져요.
 편집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여혜숙

《플랜P》는 평화를 다양한 시각, 다양한 분야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잘살아 보세" 노래하며
 소위 선진국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
 이제는 "평화와 나눔"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 한명성

여느 때보다 평화감수성이 필요한 요즘,
 《플랜P》의 1주년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 김지연

'평화는 사람이다' 《플랜P》 1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인의 일상에서, 관계에서, 사회 구조에서,
 전세계의 흐름에서- 우리가 살아야하는
 이 땅에서 평화는 사람에서 시작하여 사람들
 연결하고 사람을 살게하는 것을
 《플랜P》를 통해 배우고 확인합니다.

저널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고민을 함께 읽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미영

2021년 가을,
 <평화저널 플랜P>가 알립니다

1 협력 단체 및 개인으로 등록해주세요.

평화의 가치를 위해 실천하고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분들을 '협력 파트너'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월 1회 일정 금액을 약정해주시고, 각종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협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 에 방문하셔서 가입 경로를 밝히주시거나, 전화
 02) 6339-2272 또는 이메일 pjplanp@gmail.com 로 문의해주세요.



5호 구독 및 협력 후원자 명단

개인 고재호, 구태희, 권오석, 김경신A, 김경신B, 김경화, 김근영, 김난희, 김동규, 김병수, 김보미, 김상기, 김성목, 김수연, 김수진,
 김숙영, 김아주, 김영범, 김엘리, 김용기, 김일도, 김정민, 김중호, 김현욱, 김혜숙, 김혜원, 김효정, 문응상, 문종윤, 박상수, 박순영,
 박승미, 박아름, 박종민, 박희식, 배용하, 서진, 서형석, 석소미, 성낙환, 송주미, 손선화, 신동경, 안동규, 안은경, 엄효진, 여혜숙,
 엄승탁, 오동일, 오상열, 오은영, 옹석호, 원순재, 원용일, 유대근, 유명진, 유미호, 유진아, 윤관혁, 윤동진, 윤해웅, 윤효진, 이광현,
 이길승, 이동기, 이승준, 이영호, 이은영, 이재영, 이정훈, 이진숙, 이현호, 이화영, 임영민, 장수덕, 전기호, 전영숙, 정다빈, 정도용,
 정병오, 정승용, 정연구, 정주진, 정지수, 정혜영, 정호남, 조균석, 조서휘, 주지현, 지성근, 진일교, 차정규, 최덕근, 최미숙, 최병우,
 최향규, 최희중, 편현주, 한희석, 허미영, 현광미, 홍주리, 홍지훈, 황이진, 황홍렬
 단체 개척자들, 공명교회, 광주소명교회, 대장간출판사, 대전평화여성회,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메노나이트하늘가톨릭교회,
 비폭력평화물결, 동그라미네모, 산돌교회, 삼송동안교회,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에듀피스, 원광명교회, 의정부부서티교회,
 지음교회, 평화만사(평화를만드는사람들), 평화아이뚜비뚜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아나뎀티스트, 한국NVC센터,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MC 캐나다

2 단회 구입 또는 정기 구독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1권당 12,000원 / 1년 45,000원 (6% 할인) / 2년 87,000원 (9% 할인)
 KEB하나은행 181-910018-32105 김복기(평화저널)
 또한, 인터넷 서점 '알라딘 aladin.co.kr' 과 오프라인 서점 '모모책방' '용서점' '풀무질'
 '책약방(1-3호 구입 가능)' '책방비영' '중이잡지클럽' '보안책방'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3 매호 광고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A타입(175*250mm) 200,000원 / B타입(175*125mm) 100,000원

4 '바로잡을 것' 또는 전하고픈 말씀을 주시거나,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후기 또는 [Learning], [Culture], [Voice] 쪽지에 글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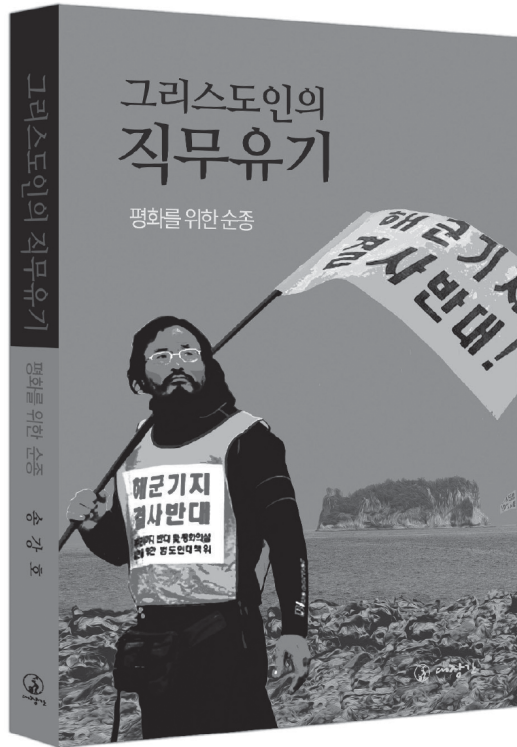
5 취재, 촬영, 편집 및 행정 사무 등의 자원활동을 기다립니다.

1회만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즐겁게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NOTICE



슬기로운 옥바라지
이 안에 송강호 있다.



한 제자의 단순한 순종

송강호 지음

"고대의 예언자들이 전쟁도 군대도 없는 세상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런 나라를 세우셨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실천했다.
우리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다."
_ 프롤로그 중에서

송강호

- #평화신학자
- #평화활동가
- #개혁자들(The Frontiers)
- #반전 평화운동
- #구림비 바위에서 기도
-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 #공존과 평화의 바다(共平海)

#평화의 항해: 제주도-오키나와-타이완

www.daejangan.org

회복적정의와 대화모임 전문가양성과정

온라인 3차 & 2022년 겨울학기 정규과정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에듀피스(Edupeace)는 회복적정의 철학에 기초하여 평화교육과 갈등해결 및 조정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과 학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1. 온라인(ZOOM) 비대면교육

	강의	날짜	수강료
온라인 3차	1단계-회복적정의와 서클진행	10월 30일, 11월 6일(토) 총 15시간 9:30~18:00	10만원
	2단계-회복적정의와 갈등해결	11월 20일, 27일(토) 총 15시간 9:30~18:00	15만원

2. 2022년 겨울학기 대면교육

	강의	날짜	수강료
	1단계-회복적정의와 서클진행	1월 10일(월), 11일(화) 총 15시간 9:30~18:00	10만원
	2단계-회복적정의와 갈등해결	1월 12일(수), 13일(목) 총 15시간 9:30~18:00	15만원
	3단계-갈등조정과 대화모임	1월 17일(월)~19일(수) 총 23시간 9:30~18:00	25만원
	[숙박과정 ; 2박3일] 4단계-트라우마 치유와 회복탄력성	1월 24일(월)~26일(수) 총 22시간 9:30~18:00	35만원
	2급-서클진행 전문가	2월 7일(월), 8일(화) 총 15시간 9:30~18:00	20만원
	1급-갈등조정 전문가	2월 10일(목)~12일(토) 총 23시간 9:30~18:00	30만원

*교육과정 운영 및 일정은 4단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숙박 또는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TEL : 031-711-8409 또는 1644-8328 / 이메일 : admin@edupeace.net



자세한 교육과정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12,000

